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자립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23. 11.



#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자립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3. 11.

(주)스마트소셜

# 제 출 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자립방안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 참여연구진

총	괄	책	임	자	류	성	일	
연	구	총	괄		홍	광	표	
과	업	운	영		강	초	룡	
과	업	운	영	보	조	박	은	행

(주)스마트소셜

# CONTENTS

## 1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 3

## 2

###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 8
- 2. 표본 설계 ..... 12
- 3. 조사 결과 ..... 12

## 3

###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1. 조사 개요 ..... 177
- 2. 분석 결과 ..... 178

## 4

###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1. 해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 196
- 2. 시사점 ..... 204

## 5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분석

1.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법률 ..... 206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및 전환 서비스 ..... 208
3.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 211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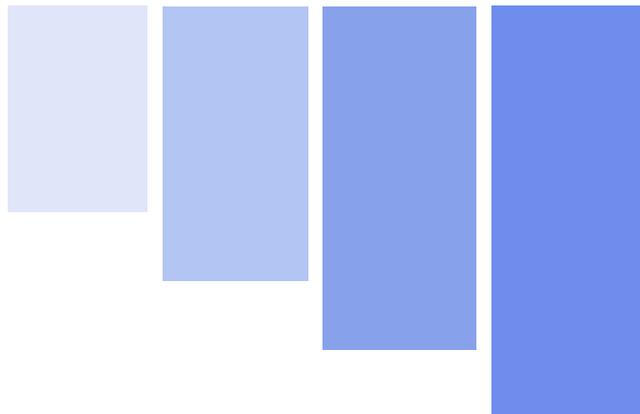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자립방안 제안

1. 초점집단면담 결과 ..... 214
2.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 216

## 7

### 요약 및 결론

1. 요약 ..... 221
2. 결론 ..... 228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의 위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202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구 규모는 2,644,700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이 25.5만명으로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장애인의 25.1%를 차지
-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
- 실제 인구 1,000명당 발달장애인의 수는 2000년 1.85명에서 2019년 4.66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도 2010년 7.0%에서 2020년 9.4%까지 증가

### ○ 발달장애인의 특성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과 자기 의사표현의 제한으로 스스로의 권리 주장이 어렵고 자기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중증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전 생애에 걸친 보호가 필요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결과, 일상생활에

서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80.3%가, 외부활동시 불편경험 정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58.7%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경험도 발달장애인은 52.9%, 비발달장애인 31.4%로 나타나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

- 2014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2018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 고용 연계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욕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 서비스들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

### ○ 발달장애인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현장 착근형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

-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6조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구축·공표된 발달장애 관련 통계자료로는 법률에서 정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 있음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에 맞는 체계적, 통합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련 기초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 ○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현장 밀착형으로 살필 필요 있음

- 발달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며 물리적, 제도적, 행정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부산 남구 지역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편이며, 관련 공사설 기관이 많은 편이므로 부산 남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욕구를 파악한다면 향후 부산 및 타 지자체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임
- 본 연구는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역별 생활실태, 욕구와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의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관련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 가. 연구 내용

####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의 내용과 제반 환경을 포함하되, 장애등록, 교육, 보육, 건강, 정신과 약물, 만성질환, 일상생활,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경제활동, 사회참여, 결혼과 양육, 가족 내 돌봄, 차별 및 학대, 복지서비스, 취업과정과 욕구, 취업 실태 및 유지, 취업 이후의 삶 등 일과 삶의 연계과정과 관련된 요인 및 결과 중심으로 조사
- 기타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필요한 내용

-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주로 조사하고 당사자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질문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조사

### ○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현황 조사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공적 급여와 복지 서비스'로 정의하고 2022년 기준으로 17개 시도에서 어떠한 지원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 조사 및 분석

### ○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해외(미국, 영국, 호주, 기타 외국)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분석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및 전환 서비스
-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자립방안 제안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욕구실태와 지원서비스 현황, 그리고 다양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제시

## 나. 과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 부산시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대상 : 부산시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이 직접 설문에 응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대리 응답 실시)
- 자료수집 기간 : 2023.09.25(월) - 10.13(금)
- 자료수집 : 설문대상 설문지 배부 및 온라인 설문 실시(네이버 폼)
- 분석방법 : SPSS 25.0ver. 활용하여 기술통계 실시
- 연구도구 : 일반특성, 장애특성, 영역별 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정책 수립 및 개선 사항 등으로 구성하고 생활 실태 파악은 장애진단, 조기개입, 보육 및 교육, 건강, 의료, 일상생활, 자기결정, 미래준비, 경제활동, 사회참여, 결혼과 양육, 가족 내 돌봄, 차별 및 학대,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

### ○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분석

- 대상 : 중앙정부 및 시도군이 생성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관련 복지제도 문서 및 사례
- 자료수집 및 처리 기간 : 2023.09.01(금) - 10.13(금)
- 수집목록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공적 급여, 복지서비스) 등의 진행 정도
- 분석방법 : Lynn의 사례분석 방법 활용

### ○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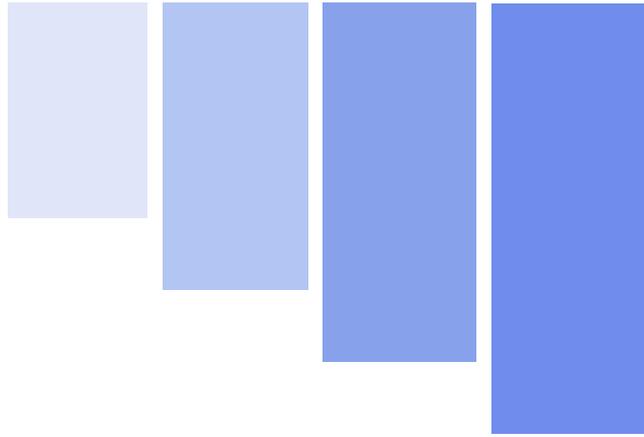
- 대상 : 국내외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발달장애인 현황
- 자료수집 및 처리 기간 : 2023.09.01(금) - 10.27(금)
- 분석방법 : 문헌분석 방법 중 의미문장 단위로 분석 실시

##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분석

- 대상 : 국외 발달장애인 관련 환경 관련 자료
  -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법률, 지원 서비스, 전환 서비스, 지원계획 등)
  - 해외 자료 : 미국, 영국, 호주 및 외국의 전환교육 사례
  - 시사점 추출
- 기간 : 2023.10.16(월) - 10.31(화)
- 자료수집 및 처리 기간 : 2023.09.01(금) - 10.13(금)
- 분석방법 : 문헌분석 방법 중 의미문장 단위로 분석 실시

##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자립방안 제안

- 대상 :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실무자 등
- 기간 : 2023.10.16(월) - 10.31(화)
- 자료수집 및 처리 기간 : 2023.09.01(금) - 10.13(금)
- 분석방법 : 연구대상자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생활 어려움, 욕구실태, 지원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분석방법에 의하여 유의미한 결과 도출



## 제2장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표본 설계
3. 조사 결과



##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 조사 목적에 따른 방향성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내용
-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동법 제6조 제1항),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동법 제6조 제2항)
- 또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명시
-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부산남구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특성, 보육·교육, 건강·의료, 일상생활, 경제활동,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산

## 나. 조사 내용

### ○ 조사 내용 일반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기존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들의 검토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영역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이에 기반하여 개발된 조사표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학계 및 현장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조사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반특성 및 장애특성, 영역별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로, 영역은 장애 진단과 조기 개입, 보육 및 교육, 건강·의료, 일상생활,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경제활동, 사회참여, 결혼과 양육, 가족 내 돌봄, 차별 및 학대, 복지서비스로 구성

[표 Ⅱ-1]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응답자 정보	대리 응답 여부(대리 응답 시 주 이유, 조사대상자와의 관계), 조사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조사 참여 가능 여부, 주소(읍면동)
일반특성	성별, 연령(출생연도), 최초 장애등록 시기, 장애유형(주 장애, 중복장애) 및 장애정도, 동거 가족 구성원, 가구원 수(총 가구원 수, 총 장애인 가구원 수), 의료보장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종류, 차상위계층 지원가정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최초 장애 인지 및 진단 시기, 장애진단과 수용과정에서의 어려움, 장애 인지 후 초기 3년간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여부, 재활치료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지난 3개월 동안 현재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 현황 및 월평균 본인부담액
보육·교육	(7세 이상) 최종 학력 및 학교 유형, 취학 유예 및 학업중단 경험, (12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 경험 여부, 유치원 이용 경험 여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하지 않은 이유, 현재 학교 등학교 방법,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장애로 인한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 여부 및 후속조치 방법, 지난 1년간 민간교육 경험 여부, (18세 이상) 학교 과정 후 진로,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이용 경험 여부, 희망하는 평생교육 내용 및 필요 지원

건강·의료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 치과 문제로 인한 불편함, 만성질환 여부, 정기적·지속적인 진료 여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 여부 및 지정 않은 이유, 지난 1년간 의료기관 미이용 여부 및 이유, 민간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및 유형, 받지 못한 이유, 가장 필요한 건강 의료서비스, 지난 1년간 운동 여부, 주로 하는 운동 및 운동 장소, 운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가장 필요한 지원
일상생활	일상생활 시 남의 도움 정도,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정도,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필요 여부, 도전행동 정도, 도전행동 치료 또는 완화 위한 서비스 이용 여부, 도전행동으로 신고당한 경험 및 처벌 경험 여부, 최근 1년 내 전문기관 상담 및 서비스 경험 여부, 코로나 19로 인한 행동 변화 정도, (보호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 낮시간 주요 활동(평일/주말), 일상생활 시 주로 도와주는 사람,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제공 일상생활 지원 인력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일상생활 도움 충분 정도, 현재 삶의 만족도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일상활동의 직접 결정 정도, 의사결정과정에 자신 의견 적극 표현 정도, 일상생활 시 주 의사결정자,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및 지정계획 여부, 과거 가족으로부터 독립 경험 여부 및 독립 주된 이유, 향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향후 희망 동거인, 희망 주거형태, 과거 거주시설 주거 여부 및 주거 기간, 거주시설 나오게 된 이유, 미래 주된 걱정, 본인 미래 위한 준비 내용, 부모 사후 미래생활 위한 필요 지원, (18세~64세) 노후 생계준비 내용
경제활동	(15세 이상) 취업 여부, 직장업무 수행 시 타인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도움 내용, 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참여 경험 여부 및 현재의 취업시 도움 정도, (미취업자)취업 희망 여부, 취업이 어려운 이유, 취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취업 위해 중요한 것, 향후 희망 일자리, 취업 희망하지 않는 이유
사회참여	혼자 외출 여부, 지난 1년간 외출 정도 및 외출 이유, 외출 시 어려운 점,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 희망하는 여가 생활,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모임 활동, 국회의원선거 투표 여부, 고민 나눌 가족·친구 등 여부 및 도와주고 응원 여부, 코로나 이후 사회참여 불편 정도
결혼과 양육	결혼 상태, 향후 결혼 희망 여부, (보호자) 결혼에 대한 가족의 생각, 결혼시 연령, 배우자의 장애 여부 및 장애특성, 자녀 여부, 자녀 양육시 어려움, 이성교제·결혼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18세 이상 여성) 여성 질환 관련 건강검진 수검 여부 및 수검하지 않은 이유
가족 내 돌봄	(보호자·주돌봄자) 일반 사항, 주 돌봄자의 돌봄 소요 시간, 주 돌봄자 부재시 돌봄 지원 여부, 평소 건강상태, 슬픔·절망, 자살 생각 정도, 가족이 겪는 어려움
차별 및 학대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정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정도, 폭력·학대·방치·무시 등 피해유형별 경험 여부, 가해자, 대처방법, 주 상담자, 권익증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 복지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않는 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 복지시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 지역사회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 가족 지역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시설 이용과정에서의 어려움, 최근 1년간 복지서비스 이용 월평균 비용(본인부담금), 장애인 복지정보 획득처, 사회 및 국가의 가장 필요한 지원

## 다. 조사의 실제

### ○ 사전 검토 실시

- 중간보고회 형태를 통하여 문항 초안에 대해 전문가 및 부산남구의회의 승인
- 특수교육 전문가 교수 2인으로부터 교차검증(cross check) 실시

### ○ 현지조사

- 기간 : 2023. 9. 25(월) - 10.13(금)
- 방법 : 부산남구 소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기관을 방문하는 발달장애인, 혹은 보호자로부터 응답 실시
- 현지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2]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참여 발달장애인 현황(장애유형, 성별)

	구 분	인원(명)	비율(%)
장애유형	지적장애	66	61.1
	자폐성장애	30	27.8
	결측(무응답 등)	12	11.1
	계	108	100
성별	남자	64	59.3
	여자	43	39.8
	결측(무응답 등)	1	0.9
	계	108	100

### ○ 자료 처리

- 수집 완료한 데이터는 SPSS 데이터 포맷으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DB에 저장
- 최종데이터는 오픈 코딩, 데이터 클리닝의 과정을 거치고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논리적 불일치 에러로 확인되는 데이터는 응답자 재확인 후 수정

- 본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패키지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이 발달장애인 실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

## 2. 표본 설계

### 가. 모집단 현황

#### ○ 표본 규모

-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표본은 부산남구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관을 방문하는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하지만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최종 인원은 108명이었고
- 이 중 각 문항별로 무응답을 포함한 결측값을 제외하고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문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3.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는 2022년 실시된 전국단위로 실시된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와 상호 견주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각 문항별로 무응답한 답지는 결측을 처리함
- 결측값을 제외한 자료를 모수로 하여 '유효 퍼센트'를 실제 응답율로 처리함

### 가. 일반특성

#### ○ 대리응답 여부

- 응답결과 : 대리응답(102명, 94.4%)이 본인응답(6명, 5.6%)보다 월등히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보호자 응답비율은 1,029명(79.2%)이고 발달장애인 본인 응답은 271명(20.8%)이어서 부산 남구가 전국 규모

에 비해 대리응답 여부가 더 많았음. 다만, 이와 같은 이유는 전국단위 규모의 설문은 조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가 종이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전국단위 조사가 상대적으로 설문 응답에 본인 응답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II-3] 대리응답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대리응답	102	94.4	94.4	94.4
본인응답	6	5.6	5.6	100
합계	108	100	100	

### ○ 대리응답자일 경우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성

- 응답결과 : 대리응답자일 경우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질문에서 어머니(67명, 63.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에서 대리 응답자의 유무는 나타나 있으나 대리응답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에 대한 항목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

[표 II-4] 대리응답자일 경우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아버지	16	14.8	15.2	15.2
어머니	67	62.0	63.8	79.0
형제자매	6	5.6	5.7	84.8
조부모	3	2.8	2.9	87.6
자녀	1	.9	1.0	88.6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2	1.9	1.9	90.5
돌봄종사자	10	9.3	9.5	100
합계	105	97.2	100	
결측	3	2.8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성별

- 응답결과 : 응답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남성(64명, 59.3%)이 여성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응답은 남자 63.3%, 여자 36.7% 응답. 본 연구에 응답한 성비는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 편임

[표 Ⅱ-5] 발달장애인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남성	64	59.3	59.3	59.3
여성	43	39.8	39.8	99.1
결측	1	.9	.9	100
합계	108	100	100	

## ○ 발달장애인의 주된 장애유형

- 응답결과 : 지적장애(66명, 68.8%)가 자폐성장애(30명, 31.3%)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의 조사 결과는 지적장애가 87.2%, 자폐성장애가 12.8%임. 본 연구와 비교하면 부산 남구의 결과도 지적장애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가 적은 편임.

[표 Ⅱ-6] 주된 장애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적장애	66	61.1	68.8	68.8
자폐성장애	30	27.8	31.3	100
합계	96	88.9	100	
결측	12	11.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 외에 등록된 다른 장애(중복장애)에 대한 조사

- 응답결과 : 응답자 중 59명(61.5%)이 중복장애 없음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의 조사 결과는 중복장애 있음이 18.3%, 중복장애 없음이 81.7%임. 전국 규모와 비교하였을 경우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중복장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Ⅱ-7] 등록된 다른 장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복장애 있음	37	34.3	38.5	38.5
중복장애 없음	59	54.6	61.5	100
합계	96	88.9	100	
결측	12	11.1		
합계	108	100		

##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

- 응답결과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뇌병변 장애(19명, 45.2%)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 단위에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32.1%), 지체장애(22.8%), 언어 장애(9.7%), 뇌전증장애와 언어장애(각 9.7%)의 순이었음. 부산 남구의 경우도 전국과 동일하게 뇌병변 장애가 가장 높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Ⅱ-8] 중복장애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체장애	8	7.4	19.0	19.0
뇌병변장애	19	17.6	45.2	64.3
시각장애	2	1.9	4.8	69.0
청각장애	2	1.9	4.8	73.8
언어장애	10	9.3	23.8	9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신장애	1	.9	2.4	100
합계	42	38.9	100	
결측	66	61.1		
합계	108	100		

###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의 등급

- 응답결과 : 중복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중 1-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68명(8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의 조사 결과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전(2019년 6월) 중복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은 1급(44.7%), 2급(20.7%), 3급(11.9%), 5급(6.6%), 6급(4.7%), 4급(1.3%)의 순이었음. 1~3급까지는 합하면 77.3%이고 이러한 빈도는 부산 남구보다 낮은 수치임. 즉 부산 남구의 경우 중복장애인의 비율도 높지만, 중복장애의 정도가 전국 규모에 비해 더 중증인 것으로 확인됨

[표 II-9] 중복장애 등급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68	63.0	84.0	84.0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6	5.6	7.4	91.4
2019년 7월 이후 등록	7	6.5	8.6	100
합계	81	75.0	100	
결측	27	25.0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동반 가족 수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몇 명의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2명(40.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3명이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명(29.1%), 2명(22.4%), 5명 이상(10.4%), 1명(7.5%)의 순임. 본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면 3명이 살고 있는 가정이 가장 많았음. 다만, 3인 가구가 부산남구는 40.6%이고 전국 규모는 30.5%여서 부산 남구가 10%p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II-10] (발달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동반 가족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명	8	7.4	7.5	7.5
2명	43	39.8	40.6	48.1
3명	15	13.9	14.2	62.3
4명	39	36.1	36.8	99.1
5명	1	.9	.9	100
합계	106	98.1	100	
결측	2	1.9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차상위 계층 여부

- 응답결과 : 응답한 발달장애인 중 84명(79.2%)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 아님이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인지에 대해서는 3.8%가 지원가정이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 중 본 조사 응답자의 20.8%가 차상위 계층이라 응답하여 전국 규모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차상위 계층 지원 여부는 기준이 명확하고 모수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사의 결과만으로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의 차상위 계층 비율이 전국 대비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Ⅱ-11] 차상위 계층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차상위 계층 해당	22	20.4	20.8	20.8
차상위 계층 아님	84	77.8	79.2	100
합계	106	98.1	100	
결측	2	1.9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가족의 다문화가정 여부

- 응답결과 : 응답한 발달장애인 중 106명(99.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이 아님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다문화가정 여부는 1.2%임. 부산 남구는 0.9%이므로 부산 남구 지역이 전국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중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만, 본 문항 역시 앞서 차상위 계층과 동일하게 전체 자료의 직접 비교가 필요한 사항임

[표 Ⅱ-12] 다문화가정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다문화가정임	1	.9	.9	.9
다문화가정 아님	106	98.1	99.1	100
합계	107	99.1	100	
결측	1	.9		
합계	108	100		

## 나. 장애진단과 조기개입

### ○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처음 발견한 나이

- 응답결과 : 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나이는 2세(24명, 27.6%)가 가장 많고, 1세(21명, 24.1%)가 유사한 비율로 뒤를 따르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1세 미만은 14.7%, 1-2세 18.8%, 3-5세 32.9%, 6-9세 13.3%, 10세 이상 20.4%로 확인됨. 이와 같은 수치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것으로 해석됨. 전국규모에서는 3-5세에 걸친 시기에 가장 많이 발견을 하지만 부산 남구에서는 2세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고 있어, 부산 남구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전국 규모에 비하여 이른 시기에 장애를 발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II-13] 장애를 처음 발견한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세	21	19.4	24.1	24.1
2세	24	22.2	27.6	51.7
3세	14	13.0	16.1	67.8
4세	9	8.3	10.3	78.2
5세	8	7.4	9.2	87.4
6세	1	.9	1.1	88.5
7세	4	3.7	4.6	93.1
8세	4	3.7	4.6	97.7
18세	1	.9	1.1	98.9
19세	1	.9	1.1	100
합계	87	80.6	100	
결측	21	19.4		
합계	108	100		

## ○ 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나이

- 응답결과 : 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나이는 1세(15명, 1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다음으로 7세(13명, 15.5%)로 뒤를 잇고 있음. 이를 통해 생후 1년 이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 직전에 장애를 가장 많이 진단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 단위의 장애 진단 시기를 살펴보면 1세 미만 6.6%, 1-2세 11.4%, 3-5세 25.7%, 6-9세 16.8%, 10세 이상 39.5%로 나타나서 1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장애를 진단받고 있음. 이에 반해 부산 남구 지역은 1세에 17.9%, 그리고 취학 시기인 7세에 15.5%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보다 빠르게 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14] 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세	15	13.9	17.9	17.9
2세	6	5.6	7.1	25.0
3세	6	5.6	7.1	32.1
4세	10	9.3	11.9	44.0
5세	9	8.3	10.7	54.8
6세	4	3.7	4.8	59.5
7세	13	12.0	15.5	75.0
8세	5	4.6	6.0	81.0
9세	1	.9	1.2	82.1
10세	2	1.9	2.4	84.5
12세	1	.9	1.2	85.7
13세	1	.9	1.2	86.9
14세	2	1.9	2.4	89.3
15세	1	.9	1.2	90.5
18세	2	1.9	2.4	92.9
19세	2	1.9	2.4	95.2
21세	1	.9	1.2	96.4
23세	1	.9	1.2	97.6
33세	1	.9	1.2	98.8
47세	1	.9	1.2	100
합계	84	77.8	100	
결측	24	22.2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장애 주 요인

- 응답결과 : 원인불명(47명, 44.3%)이 가장 높고 선천적 원인(35명, 33%)이 뒤를 이음. 대체로 원인 모르게 발달장애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선천적인 상황에 의하여 발달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발달장애인의 장애 주요인에 대한 항목은 전국 규모에서 조사되지 않아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산 남구지역에는 선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외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밝혀줄 만한 정보 제공,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15] 장애의 원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선천적 원인	35	32.4	33.0	33.0
출생시 원인	14	13.0	13.2	46.2
후천적 원인_질환	5	4.6	4.7	50.9
후천적 원인_사고	3	2.8	2.8	53.8
원인불명	47	43.5	44.3	98.1
기타	2	1.9	1.9	100
합계	106	98.1	100	
결측	2	1.9		
합계	108	100		

## ○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보호자의 어려움

- 응답결과 :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호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 스스로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43명, 46.7%)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이 42.9%로 가장 높음.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II-16] 장애진단 과정에서 경험한 보호자의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를 인정하지 못해서	43	39.8	46.7	46.7
의료기관마다 진단 결과가 달라서	5	4.6	5.4	52.2
장애관련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10	9.3	10.9	63.0
장애를 진단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어서	3	2.8	3.3	66.3
의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4	3.7	4.3	70.7
의사가 장애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9	8.3	9.8	80.4
기타	4	3.7	4.3	84.8
특별한 어려움 없었음	14	13.0	15.2	100
합계	92	85.2	100	
결측	16	14.8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재활치료나 조기교육 등을 받은 경험 유무

- 응답결과 : 부산남구 발달장애인은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받은 경험이 85명 (86.7%)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13명, 13.3%)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지 후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받은 사람이 88%임.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은 86.7%가 해당자이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국 규모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임

[표 Ⅱ-17] 재활치료나 조기교육 등을 받은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85	78.7	86.7	86.7
없음	13	12.0	13.3	100
합계	98	90.7	100	
결측	10	9.3		
합계	108	100		

### ○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처음 이용하게 된 연령

- 응답결과 :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처음 이용한 나이대는 다양하나 그 중 3세 시작(18명, 21.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 단위 조사에 의하면 1세 미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5.7%, 1-2세 19.5%, 3-5세 45.7%, 6-9세 18.2%, 10세 이상 10.8%임. 본 연구에서도 3-5세 사이에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55.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해당 연령대가 전국 수치보다 높은 편임

[표 Ⅱ-18]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처음 이용한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세	11	10.2	12.9	12.9
2세	6	5.6	7.1	20.0
3세	18	16.7	21.2	41.2
4세	13	12.0	15.3	56.5
5세	16	14.8	18.8	75.3
6세	5	4.6	5.9	81.2
7세	6	5.6	7.1	88.2
8세	3	2.8	3.5	91.8
9세	2	1.9	2.4	94.1
10세	2	1.9	2.4	96.5
11세	1	.9	1.2	97.6
12세	1	.9	1.2	98.8
20세	1	.9	1.2	100
합계	85	78.7	100	
결측	23	21.3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재활치료의 종류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재활치료의 종류 중 언어치료(67명, 76.1%)가 가장 높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과 언어 사용에 대한 지원 필요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언어치료가 67.2%로 가장 많음. 이는 놀이치료(8.1%), 물리치료(6.9%), 심리행동치료(3.6%), 작업치료(3.1%), 인지치료(2.8%), 운동치료(2.5%)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 역시 언어치료가 가장 높아 전국 평균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Ⅱ-19]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재활치료의 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언어치료	67	62.0	76.1	76.1
물리치료	7	6.5	8.0	84.1
작업치료	9	8.3	10.2	94.3
심리행동치료	3	2.8	3.4	97.7
운동치료	1	.9	1.1	98.9
기타	1	.9	1.1	100
합계	88	81.5	100	
결측	20	18.5		
합계	108	100		

### ○ 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

- 응답결과 : 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 중 사설치료 및 교육센터가 36건(40.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 의하면 사설치료·교육센터가 48.1%로 거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이외에 종합병원(15.5%), 복지기관(15.1%), 지역 병의원(10.0%), 특수교육지원센터(4.3%), 장애인 재활병원·어린이재활병원(4.0%), 보육시설(2.1%), 유치원(0.8%)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산 남구 조사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II-20] 재활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종합병원	19	17.6	21.3	21.3
지역 병의원	7	6.5	7.9	29.2
장애인(어린이) 재활병원	4	3.7	4.5	33.7
사설치료, 교육센터	36	33.3	40.4	74.2
복지기관(장애인복지관 등)	21	19.4	23.6	97.8
기타	2	1.9	2.2	100
합계	89	82.4	100	
결측	19	17.6		
합계	108	100		

### ○ 재활치료, 조기교육 등 경험이 없는 이유

- 응답결과 : 재활치료와 조기교육 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재활치료를 잘 모르기 때문'(10명, 3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 단위 조사에 의하면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마땅한 재활 치료 교육 시설이 없기 때문(2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부산 남구 지역의 조사도 역시 관련 시설이 없다는 것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이에 비해 재활 치료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21]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조기교육의 경험이 없다면 해당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재활치료를 잘 몰라서	10	9.3	30.3	30.3
주변에 마땅한 재활, 치료, 교육 시설이 없어서	9	8.3	27.3	57.6
재활치료, 교육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4	3.7	12.1	69.7
치료의 효과를 믿지 못해서	1	.9	3.0	72.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경제적인 비용 부담으로	3	2.8	9.1	81.8
다닐 필요가 없어서	3	2.8	9.1	90.9
기타	3	2.8	9.1	100
합계	33	30.6	100	
결측	75	69.4		
합계	108	100		

### ○ 재활치료나 조기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 응답결과 : 재활치료나 조기개입을 위해 '장애진단 후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 이 49명(51%)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재활치료나 조기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수준을 확대(34.3%)해 달라는 것이었음. 부산 남구 지역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경우 장애진단 및 이후에 대한 정보의 원활한 접근이 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Ⅱ-22] 재활치료나 조기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진단 후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	49	45.4	51.0	51.0
재활치료 및 조기개입을 위한 개인별 평가와 방향성 조언	4	3.7	4.2	55.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수준 확대(지원 바우처 금액 상향)	15	13.9	15.6	70.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가능 영역 확대(이용 가능 치료영역 확대 등)	8	7.4	8.3	79.2
재활치료 조기개입 서비스의 전문화(인력의 전문성 관리 등)	13	12.0	13.5	92.7
경제적 비용 지원	4	3.7	4.2	96.9
농어산촌, 중소도시 등에 재활치료 및 조기개입 지원 기관 설치	1	.9	1.0	97.9
기타	1	.9	1.0	99.0
특별한 어려움 없음	1	.9	1.0	100
합계	96	88.9	100	
결측	12	11.1		
합계	108	100		

## 다. 보육 및 교육

###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초등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초등학교 시절 경험한 학교의 유형은 '일반학교'가 33명 (43.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에서 발달장애인이 초등학교 시기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 유형은 일반학교가 5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일반학교가 가장 높지만 전국 단위 규모에 의하면 9.6%p가 낮은 편임. 상대적으로 부산 남구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시간제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임

[표 II-23] 초등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일반학교	33	30.6	43.4	43.4
일반학교 특수학급 전일제	8	7.4	10.5	53.9
일반학교 특수학급 시간제	13	12.0	17.1	71.1
특수학교	21	19.4	27.6	98.7
무학	1	.9	1.3	100
합계	76	70.4	100	
결측	32	29.6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중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중학교 시절 경험한 학교의 유형은 '특수학교'가 26명 (46.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에서 발달장애인이 중학교 시기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 유형은 일반학교가 35.5%로 가장 높고 뒤이어 특수학급이 35.1%로 높음. 이에 반해 부산 남구는 특수학교에 대한 경험이 높아 전국과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24] 중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일반학교	15	13.9	26.8	26.8
일반학교 특수학급 전일제	5	4.6	8.9	35.7
일반학교 특수학급 시간제	9	8.3	16.1	51.8
특수학교	26	24.1	46.4	98.2
무학	1	.9	1.8	100
합계	56	51.9	100	
결측	52	48.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학교의 유형은 '특수학교'가 37명 (56.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에서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 시기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 유형은 특수학교가 42.5%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결을 같이 하고 있음. 다만, 전국이 부산 남구에 비하여 14.4%p 높은 수치로 특수학교에 대한 경험도가 많음

[표 II-25]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일반학교	16	14.8	24.6	24.6
일반학교 특수학급 전일제	6	5.6	9.2	33.8
일반학교 특수학급 시간제	4	3.7	6.2	40.0
특수학교	37	34.3	56.9	96.9
대안학교	1	.9	1.5	98.5
무학	1	.9	1.5	100
합계	65	60.2	100	
결측	43	39.8		
합계	108	100		

## ○ 입학, 진학 등을 미루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 응답결과 : 입학이나 진학을 미룬 경우, 혹은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 58명(63.7%)으로 가장 높아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은 학업 중단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취학 전 유예 및 학업 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23.2%로 확인됨.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학업 중단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26] 초등학교 입학, 학년 진학 등을 미루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33	30.6	36.3	36.3
없음	58	53.7	63.7	100
합계	91	84.3	100	
결측	17	15.7		
합계	108	100		

## ○ 입학, 유예, 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시기

- 응답결과 : 입학이나 진학을 미룬 경우, 혹은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그 시기로 '초등학생 시기'가 32명(88.9%)으로 가장 높았음.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에 장애 진단 및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중단이 잦을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가 83.8%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결을 같이하고 있음. 다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초등학교 시기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학업 중단을 경험하고 있음

[표 II-27] 취학유예, 유예, 혹은 학업중단을 한 시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초등학생 시기	32	29.6	88.9	88.9
중학생 시기	1	.9	2.8	9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등학생 시기	3	2.8	8.3	100
합계	36	33.3	100	
결측	72	66.7		
합계	108	100		

### ○ 입학, 유예, 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이유

- 응답결과 : 입학, 유예, 학업중단을 경험한 이유에 대해 '장애가 좀 더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가 18명(52.9%)으로 가장 높았음. 앞서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은 학업 중단을 경험한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이 시기 장애 호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심한 장애로 인함(47.9%)이었음. 이에 반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심한 장애보다는 장애가 좀 더 호전된 후 입학하기 위하여 각종 치료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28] 취학유예, 유예 및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심한 장애로 인하여	7	6.5	20.6	20.6
합인근에 적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2	1.9	5.9	26.5
장애가 좀 더 호전된 후 입학(복학)시키기 위해서(치료, 재활(수술 등) 기간동안 학업하기 곤란)	18	16.7	52.9	79.4
교육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2	1.9	5.9	85.3
교내 친구나 다른 사람의 놀림이나 학대로 인하여	1	.9	2.9	88.2
발달장애인의 등교 거부로	3	2.8	8.8	97.1
기타	1	.9	2.9	100
합계	34	31.5	100	
결측	74	68.5		
합계	108	100		

##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한 경험

- 응답결과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있음'이 41명(80.4%)으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은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85.3%임. 부산 남구에 비하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의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Ⅱ-29]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41	38.0	80.4	80.4
없음	10	9.3	19.6	100
합계	51	47.2	100	
결측	57	52.8		
합계	108	100		

## ○ 이용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형

- 응답결과 : 이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31명(75.6%)으로 가장 높아 특수, 혹은 통합학급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 가장 많이 자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이유는 유아교육기관 내에 특수학급이 부족하거나, 특수학교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이 부족하거나,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을 일반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유형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48.7%이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2.6%에 해당하고 있음. 부산 남구 지역은 일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이유를 확인하고 부산 남구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에 재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II-30] 이용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일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31	28.7	75.6	75.6
일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내 일반학급	4	3.7	9.8	85.4
특수학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1	.9	2.4	87.8
기타	5	4.6	12.2	100
합계	41	38.0	100	
결측	67	62.0		
합계	108	100		

###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한 이유

- 응답결과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4명(34.1%)으로 가장 높음. 가정과 가까운 곳에 보다 많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기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지식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집에서 가까워서(26.4%)라고 답하였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지역은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가 가장 높고 다음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31] 응답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주위 추천으로	8	7.4	19.5	19.5
집에서 가까워서	14	13.0	34.1	53.7
장애에 대한 이해/지식을 신뢰하여	12	11.1	29.3	82.9
기관의 장애 관련 교사 수가 많아서	3	2.8	7.3	9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인의 이동(등하교) 편리성을 고려하여	3	2.8	7.3	97.6
장애인을 맡길데가 없어서	1	.9	2.4	100
합계	41	38.0	100	
결측	67	62.0		
합계	108	100		

###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의 어려움

- 응답결과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시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장애 관련 교사나 치료사 인력이 부족' 하다는 응답이 15명(48.4%)으로 가장 높음. 이상의 질문을 종합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이 많은 기관보다 우선 가정과 가까운 유아교육기관을 먼저 선택하고 있음. 유아교육기관이나 교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이 높으면 좋겠으나 그보다는 먼저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곳이 더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반 유아교육 기관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발달장애인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교사의 장애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23.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장애아 담당 교사나 치료사 등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23%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는 관련 인력 부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II-3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의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용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서	3	2.8	9.7	9.7
과외 비용 부담(경제적 부담)	1	.9	3.2	12.9
장애 관련 교사나 치료사 인력 부족	15	13.9	48.4	61.3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3	2.8	9.7	71.0
이용 아동 및 부모의 장애이해 부족	4	3.7	12.9	83.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2	1.9	6.5	90.3
기타	3	2.8	9.7	100
합계	31	28.7	100	
결측	77	71.3		
합계	108	100		

###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 응답결과 :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주위에 시설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28.6%)으로 가장 높아 앞서의 응답 의미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55.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26.5%)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본인의 장애 중증도 보다는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보임

[표 II-3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주위에 시설이 없어서	2	1.9	28.6	28.6
가정양육을 해서	1	.9	14.3	42.9
이용 정보를 몰라서	1	.9	14.3	57.1
학령기 이후에는 초등학교를 다녀서	1	.9	14.3	71.4
기타	2	1.9	28.6	100
합계	7	6.5	100	
결측	101	93.5		
합계	108	100		

## ○ 혼자 통학 가능 여부

- 응답결과 : 혼자 통학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사람이 32명(80%)으로 가장 높아 이동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규모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혼자 통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34] 혼자 통학 가능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능함	8	7.4	20.0	20.0
불가능함	32	29.6	80.0	100
합계	40	37.0	100	
결측	68	63.0		
합계	108	100		

## ○ 현재 통학하는 방법

- 응답결과 : 현재 통학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이 동행하여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21명, 55.3%)가 가장 높아 주로 가족에 의한 통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통학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가족이 동행하여 도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37.2%로 가장 높고 이는 부산 남구 지역과도 동일한 실태임. 다만, 비율을 보면 부산 남구가 18.1%p 더 높은 수치로 발달장애인의 통학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전국 단위에서는 18.3%의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18.0%의 발달장애인이 도보로 다니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부산 남구 지역의 통학로 및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II-35] 현재 통학 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족이 동행하여 도보, 차량 이용	21	19.4	55.3	55.3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여 도보 혹은 차량(대중교통 포함) 이용	7	6.5	18.4	73.7
혼자서 도보로	2	1.9	5.3	78.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학교(기관) 셔틀버스 이용	7	6.5	18.4	97.4
기타	1	.9	2.6	100
합계	38	35.2	100	
결측	70	64.8		
합계	108	100		

### ○ 교육기관(학교) 이용시 가장 어려운 점

- 응답결과 : 학교에 다니며 친구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놀림, 따돌림 등(18명, 48.6%)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 역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학교 이용의 불편한 점은 수업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25.8%로 가장 높는데 반해 부산 남구 지역은 친구의 소외, 이해 부족, 따돌림이 높아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36] 교육기관(학교)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친구들의 장애 이해 부족, 놀림, 따돌림 경험	18	16.7	48.6	48.6
선생님의 장애 이해 부족과 편견	2	1.9	5.4	54.1
수업내용이 맞지 않음	9	8.3	24.3	78.4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3	2.8	8.1	86.5
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부족	3	2.8	8.1	94.6
학교내 행사 참여 어려움 (배제 등)	1	.9	2.7	97.3
기타	1	.9	2.7	100
합계	37	34.3	100	
결측	71	65.7		
합계	108	100		

## ○ 장애로 인한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 여부

- 응답결과 : 장애로 인한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30명 (75%)으로 가장 높아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의 다수는 소외에 대한 경험이 덜한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 유무를 확인한 결과 77.7%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Ⅱ-37] 최근 1년 동안 장애로 인한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8	7.4	20.0	20.0
없음	30	27.8	75.0	95.0
1년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음	2	1.9	5.0	100
합계	40	37.0	100	
결측	68	63.0		
합계	108	100		

## ○ 장애로 인한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 시 해결 방법

- 응답결과 : 장애로 인해 놀림, 따돌림,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였던 방법은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5명(55.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학교폭력(학대) 경험 후 후속 조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이 54.1%, '교사가 가해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조치'가 34.1%,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가해학생 조치'가 11.0%로 절반 이상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부산 남구에서도 별 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전국적인 평균과 유사한 결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38] 경험한 경우 해결 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해 학생 보호자와 합의	1	.9	11.1	11.1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별 조치 없이	5	4.6	55.6	66.7
기타	3	2.8	33.3	100
합계	9	8.3	100	
결측	99	91.7		
합계	108	100		

### ○ 평생교육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지난 1년간 평생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38명 (62.3%)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 평생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평생교육을 이용한 수치는 8.2%에 해당.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이 전국에 비해 평생교육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39] 지난 1년간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23	21.3	37.7	37.7
없음	38	35.2	62.3	100
합계	61	56.5	100	
결측	47	43.5		
합계	108	100		

### ○ 경험한 평생교육 내용

- 응답결과 : 경험한 평생교육 중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8명(27.6%)으로 가장 높아 취업, 직업 등과 관련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평생교육 내용은 직업능력향

상 교육이 42.3%, 자립생활훈련 교육이 22.5%, 문화체육예술교육이 16.2%,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이 9.8%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산 남구 역시 직업능력향상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음.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생활을 위해 평생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남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II-40] 경험한 교육 내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학력보완 교육	6	5.6	20.7	20.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	3	2.8	10.3	31.0
직업능력향상 교육	8	7.4	27.6	58.6
인문교양 교육	1	.9	3.4	62.1
문화체육예술 교육	4	3.7	13.8	75.9
시민참여 교육	3	2.8	10.3	86.2
기타	24	3.8	13.8	100
합계	29	26.9	100	
결측	79	73.1		
합계	108	100		

### ○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

- 응답결과 : 평생교육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였던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20명(64.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수강한 비율이 56.2%로 가장 높음. 이는 부산 남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며 다만 부산 남구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음

[표 II-41] 평생교육을 위해 이용한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1	.9	3.2	3.2
사설기관의 평생교육기관	4	3.7	12.9	16.1
공공기관이나 시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1	.9	3.2	19.4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20	18.5	64.5	83.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	2.8	9.7	93.5
기타	2	1.9	6.5	100
합계	31	28.7	100	
결측	77	71.3		
합계	108	100		

### ○ 원하는 평생교육 내용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은 '일상생활훈련 교육'이 23명 (34.8%)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인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평생교육은 건강심리 교육과 일상생활훈련 교육이 15.6%로 높았고, 의사소통 교육이 15.3%, 치료 및 취미 여가교육이 15.2%, 직업준비 교육이 10.2%, 사회성 향상 교육이 8.2%, 문해교육이 7.1% 등 다양하게 나타남. 이에 비해 부산 남구는 일상생활 훈련, 의사소통 훈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이 있어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 있음

[표 II-4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으로 원하는 내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건강심리 교육(심리운동, 인지정서교육, 스노젤렌 등)	11	10.2	16.7	16.7
문해교육(언어기초 등)	3	2.8	4.5	21.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의사소통 교육(의사소통기술, 자기주장훈련 등)	19	17.6	28.8	50.0
일상생활훈련 교육(자기관리, 성과 건강관리 등)	23	21.3	34.8	84.8
사회성 향상 교육(사회기술,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3	2.8	4.5	89.4
직업준비 교육(직업준비, 직장예절, 정보화 교육 등)	3	2.8	4.5	93.9
치료 및 취미 여가교육(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활동, 계절캠프 등)	4	3.7	6.1	100
합계	66	61.1	100	
결측	42	38.9		
합계	108	100		

### ○ 평생교육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 응답결과 : 평생교육 이용을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가 34명(51.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평생교육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관 중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관 확대'가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설치 증가(13.6%),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비용 지원(13.4%),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교육 방법 개발과 보급(9.0%)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산 남구의 연구결과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4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관 중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확대	34	31.5	51.5	5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21	19.4	31.8	83.3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비용 지원	6	5.6	9.1	92.4
지역사회 홍보 확대	2	1.9	3.0	95.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발달장애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1	.9	1.5	97.0
기타	2	1.9	3.0	100
합계	66	61.1	100	
결측	42	38.9		
합계	108	100		

## 라. 건강 및 의료

### ○ 발달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 인식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좋은 편(74명, 70.5%)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쁜 편'이라는 응답 30.6%, '매우 나쁜 편'이라는 응답 5.8%, '매우 좋은 편'이라는 응답 3.9% 순이었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자신에 대한 건강 인식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II-44] 전반적인 건강상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나쁨	2	1.9	1.9	1.9
나쁜 편임	14	13.0	13.3	15.2
좋은 편임	74	68.5	70.5	85.7
매우 좋음	15	13.9	14.3	100
합계	105	97.2	100	
결측	3	2.8		
합계	108	100		

## ○ 장애 이외의 만성 질병 종류

- 응답결과 : 장애 이외에 어떤 종류의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가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28명(35.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만성질병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6%가 만성질병이 없다고 하였음. 이에 반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만성 질병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류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 한 결과, 정신병이 30.0%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10.3%, 치과질환 9.0%, 당뇨병 8.6%, 우울증 7.4% 등의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치과질환 등 대부분의 질환은 연령대가 높아 지면서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지역은 기타 질환, 고혈압, 척추측만증 등이 높아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45] 장애 이외 만성 질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혈압	10	9.3	12.7	12.7
뇌졸중(중풍)	1	.9	1.3	13.9
이상지혈증	2	1.9	2.5	16.5
당뇨병	2	1.9	2.5	19.0
갑상선장애	1	.9	1.3	20.3
B형간염	1	.9	1.3	21.5
골관절염	1	.9	1.3	22.8
류마티스관절염	2	1.9	2.5	25.3
골다공증	3	2.8	3.8	29.1
척추측만증	8	7.4	10.1	39.2
피부염	4	3.7	5.1	44.3
백내장	1	.9	1.3	45.6
우울증	1	.9	1.3	46.8
기타	14	13.0	17.7	64.6
특별한 문제 없음	28	25.9	35.4	100
합계	79	73.1	100	
결측	29	26.9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스트레스 정도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이다'가 51명(52.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자신의 현재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표 II-46] 현재 스트레스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느끼지 않는다	3	2.8	3.1	3.1
느끼지 않는 편이다	7	6.5	7.2	10.3
보통이다	51	47.2	52.6	62.9
느끼는 편이다	28	25.9	28.9	91.8
매우 많이 느낀다	8	7.4	8.2	100
합계	97	89.8	100	
결측	11	10.2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수면 상태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수면 상태에 대해 '보통이다'(35명, 34.3%)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소 수면 정도는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74.5%로 나타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25.8%로 나타났음. 이는 본 연구에서도 보통 이상으로 숙면을 취하는 비율이 80.4%이어서 수면 정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47] 수면상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잠을 잘 수 없다	3	2.8	2.9	2.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다소 잘 수 없다	17	15.7	16.7	19.6
보통이다	35	32.4	34.3	53.9
잘 자는 편이다	32	29.6	31.4	85.3
매우 잘 잔다	15	13.9	14.7	100
합계	102	94.4	100	
결측	6	5.6		
합계	108	100		

### ○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중 자신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52명, 56.5%)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운동을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63.9%로 운동을 한 경우보다 높았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과반 이상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여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였음

[표 II-48]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운동하고 있다	52	48.1	56.5	56.5
운동하고 있지 않다	40	37.0	43.5	100
합계	92	85.2	100	
결측	16	14.8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운동주기

- 응답결과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운동(27명, 36%) 하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1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얼마나 자주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운동을 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3회 이상' 30.0%, '주 2회' 20.2%, '주 1회'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거의 매일 운동하는 횟수보다 주 3회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인원이 보다 적은 일수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49] 운동주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거의 매일	12	11.1	16.0	16.0
주 3회 이상	27	25.0	36.0	52.0
주 2회	20	18.5	26.7	78.7
주 1회	7	6.5	9.3	88.0
월 1-2회	3	2.8	4.0	92.0
월 1회 미만 또는 1년 10회 이내	6	5.6	8.0	100
합계	75	69.4	100	
결측	33	30.6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일별 평균 운동시간(분)

- 응답결과 :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루 30분(21명, 30.9%)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한 번 운동을 하면 평균 몇 분 정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56.4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60분 사이가 46.1%로 가장 많았음. 부산 남구에서도 30-60분이 전체 77.9%에 해당할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50] 운동시간(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0분	2	1.9	2.9	2.9
20분	4	3.7	5.9	8.8
25분	1	.9	1.5	10.3
30분	21	19.4	30.9	41.2
40분	6	5.6	8.8	50.0
50분	7	6.5	10.3	60.3
60분	19	17.6	27.9	88.2
70분	1	.9	1.5	89.7
90분	5	4.6	7.4	97.1
120분	2	1.9	2.9	100
합계	68	63.0	100	
결측	40	37.0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주로 하는 운동 종류

- 응답결과 :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산책), 조깅'이 51명(68.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가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8.9%,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운동' 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51] 주로 하는 운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호흡운동	5	4.6	6.8	6.8
걷기(산책), 조깅	51	47.2	68.9	75.7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	4	3.7	5.4	81.1
균형잡기 운동	2	1.9	2.7	83.8
자전거	5	4.6	6.8	90.5
웨이트 트레이닝	1	.9	1.4	91.9
수영	4	3.7	5.4	97.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요가	1	.9	1.4	98.6
기타	1	.9	1.4	100
합계	74	68.5	100	
결측	34	31.5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주요 운동장소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36명 (49.3%)으로 가장 높음. 이와 같은 질문을 종합하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주 3회, 하루 30분, 집과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걷거나 조깅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주로 어디에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6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 스포츠 시설' 11.4%, '기타 공공체육시설' 9.9%, '집안' 8.2%, '복지관 체육시설' 6.2% 등의 순이어서 부산 남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52] 운동장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집안	17	15.7	23.3	23.3
야외 등산로나 공원	36	33.3	49.3	72.6
복지관 체육시설	5	4.6	6.8	79.5
상업 스포츠 시설	3	2.8	4.1	83.6
학교 운동장	2	1.9	2.7	86.3
공공체육시설(학교 내 체육시설 등)	7	6.5	9.6	95.9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장애인체육시설)	2	1.9	2.7	98.6
기타	1	.9	1.4	100
합계	73	67.6	100	
결측	35	32.4		
합계	108	100		

## ○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응답결과 :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타를 제외한다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8명, 17.4%)이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가 심하거나 장애 상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서'가 18.9%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관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13.0%,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10.2%, '장애인 전문 지도자가 없어서' 8.7%, '운동이 필요 없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8.3% 등의 순이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53]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3	2.8	6.5	6.5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	3.7	8.7	15.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8	7.4	17.4	32.6
장애인 전문 지도자가 없어서	5	4.6	10.9	43.5
시설 접근 및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보조인력, 보조기기 지원 포함)	4	3.7	8.7	52.2
관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2	1.9	4.3	56.5
운동이 필요 없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1	.9	2.2	58.7
장애가 심하거나, 장애 상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서	5	4.6	10.9	69.6
주위의 편견 등 시선이 불편해서	4	3.7	8.7	78.3
운동 시설 등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1	.9	2.2	80.4
기타	9	8.3	19.6	100
합계	46	42.6	100	
결측	62	57.4		
합계	108	100		

## ○ 민간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 응답결과 : 민간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62명, 63.9%)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민간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응답은 44.3%로 나타났음.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이 민간 보험에 보다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54] 민간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험 가입함	62	57.4	63.9	63.9
보험 가입하지 않음	31	28.7	32.0	95.9
가입 여부 잘 모름	4	3.7	4.1	100
합계	97	89.8	100	
결측	11	10.2		
합계	108	100		

## ○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 여부

- 응답결과 :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86명(89.6%)으로 더 많아 대체로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11.8%의 장애인이 병원 방문 필요성이 있음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산 남구 지역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55]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지 못한 경험 있음	10	9.3	10.4	10.4
가지 못한 경험 없음	86	79.6	89.6	100
합계	96	88.9	100	
결측	12	11.1		
합계	108	100		

## ○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 응답결과 : 병의원에 가지 못한 발달장애인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8명(44.4%)으로 가장 많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가지 못한 경우 병원을 가지 못한 1순위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18.1%,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17.1%, '경제적인 이유로' 12.4% 등의 순이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병의원 방문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56]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1	.9	5.6	5.6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3	2.8	16.7	22.2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8	7.4	44.4	66.7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장비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3	2.8	16.7	83.3
증상이 가벼워서	2	1.9	11.1	94.4
의료기관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	.9	5.6	100
합계	18	16.7	100	
결측	90	83.3		
합계	108	100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 여부

- 응답결과 :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82명(88.2%)으로 지정된 경우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정하였다는 응답은 11.1%임. 부산 남구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57]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지정되어 있음	11	10.2	11.8	11.8
지정되어 있지 않음	82	75.9	88.2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 응답결과 : 건강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관련 제도를 모르기 때문(55명, 76.4%)인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음. 이는 부산 남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58]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몰라서	55	50.9	76.4	76.4
의사(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진료 거부)	2	1.9	2.8	79.2
의료기관의 장애인 시설, 설비 설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5	4.6	6.9	86.1
경제적 이유로	3	2.8	4.2	90.3
내가 진료받기 싫어서(당사자가 진료받기 싫어해서)	1	.9	1.4	91.7
기타	6	5.6	8.3	100
합계	72	66.7	100	
결측	36	33.3		
합계	108	100		

## ○ 이용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 응답결과 : 의료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54명, 56.3%)이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59]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1.9	2.1	2.1
만족하지 않는다	8	7.4	8.3	10.4
보통이다	54	50.0	56.3	66.7
만족한다	27	25.0	28.1	94.8
매우 만족한다	5	4.6	5.2	100
합계	96	88.9	100	
결측	12	11.1		
합계	108	100		

## ○ 건강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30명, 30.3%)으로 나타나 관련자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뒷받침될 필요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건강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인식을 조사하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60] 자신의 건강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30	27.8	30.3	30.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만 클리닉 설치	16	14.8	16.2	46.5
의료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9	8.3	9.1	55.6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1	.9	1.0	56.6
건강 유지 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5	4.6	5.1	61.6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16	14.8	16.2	77.8
발달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헬스트레이너, 재활 체육 전문가 등) 양성	8	7.4	8.1	85.9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1	.9	1.0	86.9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6	5.6	6.1	92.9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1	.9	1.0	93.9
수술비,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6	5.6	6.1	100
합계	99	91.7	100	
결측	9	8.3		
합계	108	100		

## 마. 일상생활

###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42명(42.4%)으로 가장 높아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보다 발달장애인이 겪고 있는 특정 기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전체 발달장애인 중 22.5%가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부산 남구는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12%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임

[표 II-61]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모든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3	12.0	13.1	13.1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34	31.5	34.3	47.5
특정 부분의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2	38.9	42.4	89.9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8	7.4	8.1	98.0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	1.9	2.0	100
합계	99	91.7	100	
결측	9	8.3		
합계	108	100		

### ○ 일상생활 대화 시 도움의 필요 정도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한 항목에서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32명, 32.7%)'와 '일부 도움을 받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32명, 32.7%)'가 동률로 확인되어 발달장애인들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8.4%로 나타남. 또한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7.8%로, 두 가지 응답 비율을 합하면 발달장애인의 36.2%가 상당한 수준의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서 77.6%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표 II-62] 대화 시 도움 필요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다	.12	11.1	12.2	12.2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2	29.6	32.7	44.9
일부 도움을 받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2	29.6	32.7	7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대부분 스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5	13.9	15.3	92.9
도움 없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7	6.5	7.1	100
합계	98	90.7	100	
결측	10	9.3		
합계	108	100		

### ○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여부

- 응답결과 :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93명(98.9%)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률은 0.8%임

[표 II-63] 의사소통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함	1	.9	1.1	1.1
사용하지 않음	93	86.1	98.9	100
합계	94	87.0	100	
결측	14	13.0		
합계	108	100		

### ○ 감각기능 보조기기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감각기능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92명(98.9%)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감각기능 보조기기 사용률은 0.7%임

[표 II-64] 감각기능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함	1	.9	1.1	1.1
사용하지 않음	92	85.2	98.9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신체기능 보조기기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신체기능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87명(93.5%)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신체기능 보조기기 사용률은 2.8%임

[표 Ⅱ-65] 신체기능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함	6	5.6	6.5	6.5
사용하지 않음	87	80.6	93.5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이동 보조기기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86명(92.5%)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이동 보조기기 사용률은 5.2%임

[표 Ⅱ-66] 이동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함	7	6.5	7.5	7.5
사용하지 않음	86	79.6	92.5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의료 보조기기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의료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93명(100%)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의료 보조기기 사용률은 0.5%임

[표 II-67] 의료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하지 않음	93	86.1	100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위험방지 보조기기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위험방지 보조기기 사용 여부에 대해 92명(98.9%)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보조기기 이용 여부와 관련한 이상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부산 남구 지역 발달장애인의 다수는 각종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위험방지 보조기기 사용률은 1.4%임

[표 II-68] 위험방지 보조기기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용함	1	.9	1.1	1.1
사용하지 않음	92	85.2	98.9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낮시간 주요 활동 내용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에서 응답자 중 53명(53.5%)이 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은 낮 시간대에 주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음. 이어서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경우 20.2%, 기관 이용이 13.9%로 뒤를 잇고 있음.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평일 낮시간을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보내고 있음

[표 II-69] 낮시간 활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집에서 혼자 지낸다	5	4.6	5.1	5.1
집에서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	53	49.1	53.5	58.6
집에서 활동지원사 등 지원인력과 보낸다	8	7.4	8.1	66.7
집 밖에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보낸다	1	.9	1.0	67.7
복지시설(기관)에서 보낸다	16	14.8	16.2	83.8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보낸다	2	1.9	2.0	85.9
시설 치료·교육·체육 시설이나 학원에서 보낸다	8	7.4	8.1	93.9
직장(직업재활시설 포함)에서 보낸다	6	5.6	6.1	100
합계	99	91.7	100	
결측	9	8.3		
합계	108	100		

### ○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88명(88%)이 부모라고 답하여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 부모가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부모에게 도움이 치중되어 있음

[표 II-70]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부모	88	81.5	88.0	88.0
배우자 및 자녀	1	.9	1.0	89.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형제, 자매	3	2.8	3.0	92.0
조부모	1	.9	1.0	93.0
방문돌봄제공인력	4	3.7	4.0	97.0
성년후견인	1	.9	1.0	98.0
기타종사자(복지관, 시설, 센터 등)	1	.9	1.0	99.0
기타	1	.9	1.0	100
합계	100	92.6	100	
결측	8	7.4		
합계	108	100		

### ○ 지자체 사업으로 생활에서 인력지원,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여부

- 응답결과 :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지원, 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73명(75.3%)이 이용하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중 36.8%가 공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75.3%가 이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II-71]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인력지원, 주간보호시설 이용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용하고 있음	73	67.6	75.3	75.3
이용하고 있지 않음	24	22.2	24.7	100
합계	97	89.8	100	
결측	11	10.2		
합계	108	100		

## ○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사람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현재 필요한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43명(46.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전체 발달장애인의 9.1%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7%가 부족한 편이라고 답함. 이에 비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33.3%가 부족하다고 하여 전국 평균보다는 나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72] 일상생활에 필요한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부족하다	6	5.6	6.5	6.5
부족한 편이다	25	23.1	26.9	33.3
보통이다	43	39.8	46.2	79.6
충분한 편이다	17	15.7	18.3	97.8
매우 충분하다	2	1.9	2.2	100
합계	93	86.1	100	
결측	15	13.9		
합계	108	100		

## ○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인식하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8명(63.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4.4%가 현재 자신의 삶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1.6%는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60.3%는 만족하는 편이다, 3.6%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 이에 비해 부산 남구 지역은 보통이다 가장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73]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말 만족하지 않는다	1	.9	1.1	1.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3	12.0	14.3	15.4
보통이다	58	53.7	63.7	79.1
만족하는 편이다	17	15.7	18.7	97.8
매우 만족한다	2	1.9	2.2	100
합계	91	84.3	100	
결측	17	15.7		
합계	108	100		

## 바.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 ○ 향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 응답결과 : 향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부모(48명, 69.6%)가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서 14.6%, 결혼 등으로 새 가족과 함께 13.9%, 형제.자매와 함께 8.7% 등의 순이어서 부산 남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부모에 대한 기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74] 향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혼자서	2	1.9	2.9	2.9
결혼 등으로 새 가족과 함께	5	4.6	7.2	10.1
부모와 함께	48	44.4	69.6	79.7
형제 자매와 함께	2	1.9	2.9	82.6
친구나 동료와 함께	8	7.4	11.6	94.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기타	4	3.7	5.8	100
합계	69	63.9	100	
결측	39	36.1		
합계	108	100		

### ○ 향후 가장 살고 싶은 집의 형태

- 응답결과 : 향후 가장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지원 인력이 필요시 방문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25명(35.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독립적인 일반 가정집이 68.8%로 가장 많았고, 지원주택과 같이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일반 가정집이 15.9%로 뒤를 잇고 있음. 이는 부산 남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음

[표 Ⅱ-75] 가장 살고 싶은 형태의 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독립적인 일반 가정집	13	12.0	18.6	18.6
지원 인력이 필요할 때 방문하는 일반 가정집	20	18.5	28.6	47.1
지원 인력이 필요할 때 방문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5	23.1	35.7	82.9
지원 인력이 출퇴근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	2.8	4.3	87.1
입소하여 단체 생활을 하는 거주시설	4	3.7	5.7	92.9
기타	5	4.6	7.1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주시설에 살았던 경험 여부

- 응답결과 : 현재까지 거주시설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46명(68.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재가 발달장애인의 6.0%가 과거에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경험이 31.3%에 해당하여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76] 현재나 과거에 거주시설에 살았던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현재 살고 있다	8	7.4	11.9	11.9
과거에 살았던 적이 있다	13	12.0	19.4	31.3
살았던 적이 없다	46	42.6	68.7	100
합계	67	62.0	100	
결측	41	38.0		
합계	108	100		

## ○ 거주시설에 살았던 총 기간

- 응답결과 : 거주시설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거주기간에 살았던 총 기간을 문의한 결과 1년(혹은 그 미만)이 7명(3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거주시설에 살았던 기간은 1년 미만이 26.3%, 10년 이상이 26.5%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 부산 남구에서도 1년 미만이 35%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77] 거주시설에 살았던 총 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년	7	6.5	35.0	35.0
2년	2	1.9	10.0	45.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년	2	1.9	10.0	55.0
9년	1	.9	5.0	60.0
10년	4	3.7	20.0	80.0
13년	1	.9	5.0	85.0
21년	1	.9	5.0	90.0
25년	1	.9	5.0	95.0
26년	1	.9	5.0	100
합계	20	18.5	100	
결측	88	81.5		
합계	108	100		

### ○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된 이유

- 응답결과 :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시설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명(31.3%)으로 가장 높아 시설에서의 친절도 및 응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퇴소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16.9%, 시설에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우해서 14.1%, 시설에서 살기로 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9.0%, 취업이나 결혼으로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8.0%, 기관 종사자가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살 것을 권유해서 6.4%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산 남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부산 남구는 독립보다는 부당한 대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78]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2	1.9	12.5	12.5
취업이나 결혼으로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1	.9	6.3	18.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족이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2	1.9	12.5	31.3
시설에서 살기로 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	.9	6.3	37.5
기관 종사자가 밖에서 살 것을 권유해서	1	.9	6.3	43.8
시설에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우해서	5	4.6	31.3	75.1
기타	4	3.7	25.0	100
합계	16	14.8	100	
결측	92	85.2		
합계	108	100		

### ○ 수면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수면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그런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31명(43.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수면선택의 자유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7.9%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수면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부산 남구가 낮은 편임

[표 Ⅱ-79] 수면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5	4.6	7.0	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	7.4	11.3	18.3
보통이다	19	17.6	26.8	45.1
그런 편이다	31	28.7	43.7	88.7
매우 그렇다	8	7.4	11.3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음식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음식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그런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24명(33.8%)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음식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61.5%임. 부산 남구는 74.6%로 음식선택의 자유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표 II-80] 음식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7	6.5	9.9	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	10.2	15.5	25.4
보통이다	20	18.5	28.2	53.5
그런 편이다	24	22.2	33.8	87.3
매우 그렇다	9	8.3	12.7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의류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의류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22명(31%)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의류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74.9%로 나타남. 이에 반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69%가 의류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표 II-81] 의류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9	8.3	12.7	1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	12.0	18.3	31.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이다	22	20.4	31.0	62.0
그런 편이다	21	19.4	29.6	91.5
매우 그렇다	6	5.6	8.5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여가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여가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그런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26명(36.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여가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68%로 나타남. 부산 남구는 62%로 나타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Ⅱ-82] 여가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1	10.2	15.5	1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14.8	22.5	38.0
보통이다	15	13.9	21.1	59.2
그런 편이다	26	24.1	36.6	95.8
매우 그렇다	3	2.8	4.2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대인관계 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28명(40%)으로 가장 높음. 현재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대인관계 선택에 있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 부족이 원인일 수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대인관계 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52.6%이고 대인관계 선택에서 그런 적이 전혀 없다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처럼 전국적으로도 대인관계 선택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83] 대인관계 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8	25.9	40.0	4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14.8	22.9	62.9
보통이다	14	13.0	20.0	82.9
그런 편이다	9	8.3	12.9	95.7
매우 그렇다	3	2.8	4.3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33명(47.1%)으로 가장 높음. 이와 같은 이유는 후술될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수입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는 보통 이상이 48.6%임. 실제 자유를 절대적으로 가지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1.4%에 해당하고 있음. 부산 남구에서도 62.9%가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임

[표 Ⅱ-84]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3	30.6	47.1	4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	12.0	18.6	65.7
보통이다	9	8.3	12.9	78.6
그런 편이다	9	8.3	12.9	91.4
매우 그렇다	6	5.6	8.6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직업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직업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37명(52.9%)으로 가장 높아 발달장애인이 직업 선택에서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38.5%에 해당하며 나머지 61.5%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이보다 높은 수치인 75.7%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Ⅱ-85] 직업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7	34.3	52.9	5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14.8	22.9	75.7
보통이다	13	12.0	18.6	94.3
그런 편이다	3	2.8	4.3	98.6
매우 그렇다	1	.9	1.4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시설, 기관, 서비스 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시설, 기관,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35명(50%)으로 가장 높아 시설, 기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약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시설, 기관, 서비스 선택의 자유는 보통 이상이 38.6%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도 관련 자유가 없다는 인식이 72.9%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표 Ⅱ-86] 시설, 기관, 서비스 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35	32.4	50.0	5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14.8	22.9	72.9
보통이다	12	11.1	17.1	90.0
그런 편이다	6	5.6	8.6	98.6
매우 그렇다	1	.9	1.4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자유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27명(38%)으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일상생활 속 선택의 자유에 대해 61%가 긍정의 답을 하였음. 반면 부산 남구는 39.4%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자유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I-87]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선택의 자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7	25.0	38.0	3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	14.8	22.5	60.6
보통이다	18	16.7	25.4	85.9
그런 편이다	7	6.5	9.9	95.8
매우 그렇다	3	2.8	4.2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의사표현의 자유

- 응답결과 : 의사표현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36명(50.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편이다 50.4%,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10.6%에 해당하고 있음. 부산 남구의 경우 보통이다가 50.7%에 해당하고 있어 전국에 견주어 보았을 경우 의사표현의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88] 의사표현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0	9.3	14.1	1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	11.1	16.9	31.0
보통이다	36	33.3	50.7	81.7
그런 편이다	11	10.2	15.5	97.2
매우 그렇다	2	1.9	2.8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 응답결과 :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부모가 58명(82.9%)으로 가장 높아 부모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주된 의사결정자가 본인이라는 응답은 28.6%로 나타났으며, 타인인 경우 부모가 50.4%로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 8.8%, 배우자 6.1%, 기타 가족 및 친인척 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에 반해 부산 남구의 경우 부모의 의사결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9]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본인	9	8.3	12.9	12.9
부모	58	53.7	82.9	95.7
형제, 자매	1	.9	1.4	97.1
방문돌봄제공인력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1	.9	1.4	98.6
기관종사자(복지관, 시설, 센터 등)	1	.9	1.4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

- 응답결과 :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혼자 남겨지는 것(18명, 25.4%), 건강(17명, 23.9%),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16명, 22.5%) 등으로 나타나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22.5%,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21.7%, 재산 마련 및 생활비 10.0%, 직업생활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산 남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Ⅱ-90]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직업생활	11	10.2	15.5	15.5
재산마련 및 생활비	6	5.6	8.5	23.9
이성교제 및 결혼	1	.9	1.4	25.4
집	1	.9	1.4	26.8
건강	17	15.7	23.9	50.7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16	14.8	22.5	73.2
혼자 남겨지는 것	18	16.7	25.4	98.6
특별히 없음	1	.9	1.4	100
합계	71	65.7	100	
결측	37	34.3		
합계	108	100		

### ○ 미래를 위한 준비 경험

- 응답결과 : 본인 미래, 가족 유고를 위한 대비로서 집이나 재산을 마련해 놓았거나 모으고 있는 경우가 11명(40.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집이나 재산을 마련해 놓았거나 모으는 준비를 한 경험이 8.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경험 4.5%,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를 정해 둔 경험 2.7%, 전문기관에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을 받은 경험 1.5%의 순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 결과와 유사함

[표 Ⅱ-91] 본인의 미래를 위해, 혹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문기관에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을 받았다	3	2.8	11.1	11.1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6	5.6	22.2	33.3
집이나 재산을 마련해 놓았거나 모으고 있다	11	10.2	40.7	74.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를 정해 두었다	3	2.8	11.1	85.2
기타	3	2.8	11.1	96.3
없다	1	.9	3.7	100
합계	27	25.0	100	
결측	81	75.0		
합계	108	100		

### ○ 향후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 응답결과 : 향후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10명, 38.5%)하는 경우와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저축(10명, 38.5%)하는 것이 동일하게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미래를 위해 발달장애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16.6%로 가장 높고 생활비 저축이 15.8%로 뒤를 잇고 있어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2배 정도 많은 수치로 연금과 저축을 준비하고 있음

[표 II-92] 나이가 들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0	9.3	38.5	38.5
나이가 들었을 때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1	.9	3.8	42.3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저축해놓고 있다	10	9.3	38.5	80.8
나이가 들었을 때 가족이나 친인척이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5	4.6	19.2	100
합계	26	24.1	100	
결측	82	75.9		
합계	108	100		

## ○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응답결과 : 본인미래, 가족 유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필요가 16명(23.2%)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15명, 21.7%),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나를 보호해 줄 사람에 대한 필요(15명, 21.7%) 역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응답 25.3%,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15.4%,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는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93] 본인 미래, 가족 사망 등 대비를 위한 필요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하다	16	14.8	23.2	23.2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8	7.4	11.6	34.8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6	5.6	8.7	43.5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6	5.6	8.7	52.2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어야 한다	3	2.8	4.3	56.5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5	13.9	21.7	78.3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15	13.9	21.7	100
합계	69	63.9	100	
결측	39	36.1		
합계	108	100		

## 사. 경제활동

### ○ 발달장애인 본인의 취업 여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경우가 41명(60.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중 취업자 비율은 20.3%이며 이는 부산 남구와 유사함

[표 II-94] 취업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취업 중	23	21.3	33.8	33.8
취업 중 아님	41	38.0	60.3	94.1
기타	4	3.7	5.9	100
합계	68	63.0	100	
결측	40	37.0		
합계	108	100		

### ○ 취업한 곳의 직종

- 응답결과 :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직업의 직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단순노무직이 18명(78.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에서 단순노무직이 전체의 82.2%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는 부산 남구와도 유사함

[표 II-95] 직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서비스직	1	.9	4.3	4.3
기능직	2	1.9	8.7	13.0
장치/기계조립직	2	1.9	8.7	21.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단순노무직	18	16.7	78.3	100
합계	23	21.3	100	
결측	85	78.7		
합계	108	100		

### ○ 고용의 형태

- 응답결과 : 고용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1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근무지(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기관에 주로 취업하고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비중이 전체의 30.9%로 가장 높았으며,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9.3%)과 장애인 관련 기관(9.6%), 장애인 표준사업장(3.8%)을 모두 합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3.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남구도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표 II-96] 취업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일반사업체	2	1.9	7.7	7.7
장애인 보호작업장	13	12.0	50.0	57.7
장애인 근로사업장	5	4.6	19.2	76.9
장애인 관련 기관	5	4.6	19.2	96.2
기타	1	.9	3.8	100
합계	26	24.1	100	
결측	82	75.9		
합계	108	100		

## ○ 고용상 지위

- 응답결과 : 고용상 지위를 확인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1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발달장애인 취업자 중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35.3%에 불과한 반면,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42.4%, 15.1%로서 이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5%에 달하고 있음. 이에 비해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상용근로자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97] 고용상 지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상용근로자	12	11.1	50.0	50.0
임시근로자	7	6.5	29.2	79.2
일용근로자	3	2.8	12.5	91.7
유급가족종사자	1	.9	4.2	95.8
무급가족종사자	1	.9	4.2	100
합계	24	22.2	100	
결측	84	77.8		
합계	108	100		

## ○ 현 직장에 근로한 총 기간

- 응답결과 : 현 직장에 근로한 총 기간은 2년이 4명(23.5%)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1년이 3명(17.6%)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현 직장 근로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1~3년 미만이 26.6%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10년 23.5%, 10년 이상 20.1%, 3~5년 미만 16.4%, 1년 미만 13.4%의 순으로 나타남. 부산 남구 역시 3년 미만이 47.1%로 과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가장 많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p 높은 수치임

[표 II-98] 현직장 근로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년	3	2.8	17.6	17.6
2년	4	3.7	23.5	41.2
3년	1	.9	5.9	47.1
4년	1	.9	5.9	52.9
5년	2	1.9	11.8	64.7
6년	1	.9	5.9	70.6
7년	2	1.9	11.8	82.4
8년	2	1.9	11.8	94.1
10년	1	.9	5.9	100
합계	17	15.7	100	
결측	91	84.3		
합계	108	100		

### ○ 현 직장에서의 주당 근로시간

- 응답결과 : 현 직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6명(33.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9.6시간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10시간 이상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부산 남구의 경우 주당 40시간이 가장 많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20시간 미만도 50%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 있음

[표 II-99] 현직장 근로시간(주당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시간	1	.9	5.6	5.6
5시간	1	.9	5.6	11.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0시간	1	.9	5.6	16.7
1시간	3	2.8	16.7	33.3
20시간	3	2.8	16.7	50.0
30시간	1	.9	5.6	55.6
35시간	2	1.9	11.1	66.7
40시간	6	5.6	33.3	100
합계	18	16.7	100	
결측	90	83.3		
합계	108	100		

### ○ 월 소득

- 응답결과 :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월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0명(8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50만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9.7%,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3.9%,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2.0%, 200만원 이상 5.0%, 소득 없음 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표 II-100] 월소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소득 없음	1	.9	4.0	4.0
50만원 미만	20	18.5	80.0	84.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	.9	4.0	88.0
100만원~150만원 미만	3	2.8	12.0	100
합계	25	23.1	100	
결측	83	76.9		
합계	108	100		

## ○ 취업 희망 여부

- 응답결과 : 취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27명(62.8%)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84.6%로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의 비중(15.4%)을 크게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남구와도 유사한 결과임

[표 II-101] 취업 희망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원함	16	14.8	37.2	37.2
원하지 않음	27	25.0	62.8	100
합계	43	39.8	100	
결측	65	60.2		
합계	108	100		

## ○ 취업이 어려운 이유

- 응답결과 :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하기 때문이 34명(60.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미취업 발달장애인들이 꼽은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함'이 63.7%로 다른 요인을 압도하였으며, 이어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9.1%, '건강이 좋지 않음' 8.9%, '대인관계가 서툰'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02] 취업이 어려운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함	34	31.5	60.7	60.7
건강이 좋지 않음	1	.9	1.8	62.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가 출퇴근이 안됨	5	4.6	8.9	71.4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8	7.4	14.3	85.7
대인관계가 서툰	4	3.7	7.1	92.9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	.9	1.8	94.6
기타	3	2.8	5.4	100
합계	56	51.9	100	
결측	52	48.1		
합계	108	100		

### ○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응답결과 :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무환경(저위험, 근무시간 등 장애인 편의 제공)이라는 응답이 13명(52%)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근무환경'(44.2%), '적성과 흥미'(15.1%), '직업안정성'(12.9%), '급여 및 직원복지'(10.3%), '접근성'(9.4%)등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 평균과 같은 현상으로 파악됨

[표 II-103]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적성과 기호	6	5.6	24.0	24.0
급여 및 직원복지	3	2.8	12.0	36.0
근무환경 (저위험, 근무시간 등 장애인 편의 제공)	13	12.0	52.0	88.0
직업안정성(고용유지)	1	.9	4.0	92.0
친구나 친척 등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직장	2	1.9	8.0	100
합계	25	23.1	100	
결측	83	76.9		
합계	108	100		

## ○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응답결과 : 취업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문항에 대해 장애정도가 심해 취업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18명(51.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미취업 발달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들이 이유로 꼽은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음'과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이 어려움'이 각각 41.4%와 40.1%로 전체의 81.5%를 차지함. 부산 남구의 경우도 장애정도로 인하여 취업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부산 남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소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음

[표 II-104]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본인이 원하지 않음	5	4.6	14.3	14.3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이 어려움(자가통근 불가 등)	18	16.7	51.4	65.7
굳이 별지 않아도 됨	1	.9	2.9	68.6
급여에 비해 일이 힘들 것 같아서	2	1.9	5.7	74.3
일하다가 재발하거나 건강을 해칠까봐	4	3.7	11.4	85.7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3	2.8	8.6	94.3
기타	2	1.9	5.7	100
합계	35	32.4	100	
결측	73	67.6		
합계	108	100		

## ○ 취업의 용이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 응답결과 : 취업이 용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3명(48.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미취업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꼽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취업지원·직업훈련프로그램/기관의 확대' 37.3%,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확충' 27.6%, '취업정보 제공' 12.9% 등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05] 취업을 좀 더 쉽게 잘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취업훈련 프로그램/기관의 확대	23	21.3	48.9	48.9
직업재활시설 확충	6	5.6	12.8	61.7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양성과 배치 확대	6	5.6	12.8	74.5
좋은 일자리 확보	5	4.6	10.6	85.1
전공과 확대	2	1.9	4.3	89.4
의무고용비율 등 정책적 지원 강화	2	1.9	4.3	93.6
기타	3	2.8	6.4	100
합계	47	43.5	100	
결측	61	56.5		
합계	108	100		

## ○ 직장 업무 수행시 타인의 도움 여부

- 응답결과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직장 업무 수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14명(66.7%)으로 필요치 않은 경우보다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취업한 발달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5.5%임. 이에 반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66.7%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표 II-106] (현재취업중인 분 응답)직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14	13.0	66.7	66.7
아니오	7	6.5	33.3	100
합계	21	19.4	100	
결측	87	80.6		
합계	108	100		

### ○ 직장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의 종류

- 응답결과 : 직장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출퇴근 지원(12명, 46.2%)이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취업한 발달장애인들은 '업무처리 등 작업지원' 38.1%, '출퇴근 등 이동지원' 36.8%, '동료, 상사와의 의사소통지원' 13.3%, '직업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상담' 8.2% 등으로 나타남. 이와 달리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출퇴근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107] (현재 취업중인 분 응답)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출퇴근 지원	12	11.1	46.2	46.2
사무보조 및 지원	1	.9	3.8	50.0
작업지원	4	3.7	15.4	65.4
의사소통 지원	5	4.6	19.2	84.6
이동지원	1	.9	3.8	88.5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3	2.8	11.5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26	24.1	100	
결측	82	75.9		
합계	108	100		

### ○ 직장생활시 느낀 어려움의 종류

- 응답결과 :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종류로 낮은 임금(11명, 40.7%)이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이 일과 관련되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임금' (31.8%)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08] (현재 취업중인 분 응답)일하면서 느낀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낮은 임금	11	10.2	40.7	40.7
출퇴근의 불편 등 교통문제	1	.9	3.7	44.4
부적절한 업무배치	1	.9	3.7	48.1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5	4.6	18.5	66.7
편의시설 부족	1	.9	3.7	70.4
의사소통의 어려움	3	2.8	11.1	81.5
직장상사 혹은 동료관계의 어려움	1	.9	3.7	85.2
힘듦점 없음	4	3.7	14.8	100
합계	27	25.0	100	
결측	81	75.0		
합계	108	100		

## ○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응답결과 :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의 형태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응답이 21명(37.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미취업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임. 이는 부산 남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09]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영업	2	1.9	3.6	3.6
일반사업체	6	5.6	10.7	14.3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9	8.3	16.1	30.4
장애인 보호작업장	21	19.4	37.5	67.9
장애인근로사업장	6	5.6	10.7	78.6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포함)	6	5.6	10.7	89.3
장애인 표준사업장	1	.9	1.8	91.1
가족사업체	1	.9	1.8	92.9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1	.9	1.8	94.6
기타	3	2.8	5.4	100
합계	56	51.9	100	
결측	52	48.1		
합계	108	100		

## 아. 사회참여

### ○ 지난 1년간 외출의 정도

- 응답결과 : 지난 1년간 외출의 정도를 확인한 질문에 거의 매일 외출하는 사람이 48명(64.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외출 빈도를 살펴 본 결과, '거의 매일 외출한다'의 응답 비중이 전체의 5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주일에 1~3번 외출한다' 25.3%, '한 달에 1~3번 외출한다' 13.0%, '지난 1년 동안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7.6%의 순으로 나타남. 부산 남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Ⅱ-110] 지난 1년간 외출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거의 매일 외출한다	48	44.4	64.9	64.9
일주일에 1번~번 외출한다	17	15.7	23.0	87.8
한 달에 1번~3번 외출한다	7	6.5	9.5	97.3
지난 1년 동안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2	1.9	2.7	100
합계	74	68.5	100	
결측	34	31.5		
합계	108	100		

### ○ 외출을 하게 된 이유

- 응답결과 : 외출을 하였다면 그 이유로는 복지관, 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 27명(3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외출한 목적은 산책, 운동하기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출퇴근 19.1%, 학교 등하교 16.1%, 복지관, 센터 이용하거나 행사 참여하기 14.3%, 병원 진료받기 10.0% 등의 순으로 확인됨. 부산 남구의 경우 복지관이나 센터 방문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산책 및 운동하기여서 전국 평균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Ⅱ-111] 외출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출퇴근	14	13.0	19.2	19.2
병원 진료받기	5	4.6	6.8	26.0
쇼핑(물건 사기)	5	4.6	6.8	32.9
산책, 운동하기	16	14.8	21.9	54.8
여행 가기	2	1.9	2.7	57.5
친척, 친구, 이웃집에 놀러가기	3	2.8	4.1	61.6
복지과, 센터 이용하거나 행사 참여하기	27	25.0	37.0	98.6
직업 관련하여 배우거나 체험하는 활동	1	.9	1.4	100
합계	73	67.6	100	
결측	35	32.4		
합계	108	100		

### ○ 외출 시 어려운 점

- 응답결과 : 외출 시 어려운 점은 차별 경험이 32명(46.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들이 외출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24.8%), '주위 시선이 불편하다'(13.2%), '거동이  
불편하다'(10.5%), '외출을 도와 줄 사람이 없다'(10.5%) 등의 순이어서 부산 남구  
결과와 다소 다름.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별 경험이나 시선에 가장 어려  
움을 느끼고 있음

[표 Ⅱ-112] 외출 시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주위 시선이 불편하다(편견이나 부정적 선입견)	12	11.1	17.4	17.4
차별을 경험한다	32	29.6	46.4	63.8
거동이 불편하다	1	.9	1.4	65.2
교통이 불편하다	1	.9	1.4	66.7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	.9	1.4	68.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외출을 도와 줄 사람이 없다	6	5.6	8.7	76.8
외출에 어려움이 없다	12	11.1	17.4	94.2
기타	4	3.7	5.8	100
합계	69	63.9	100	
결측	39	36.1		
합계	108	100		

### ○ 지난 1년간 여가 활동의 종류

- 응답결과 : 지난 1년간 여가 활동을 한 종류는 TV시청이 39명(52.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TV시청으로서 전체의 54.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이는 부산 남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

[표 II-113] 지난 1년간 여가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TV 시청	39	36.1	52.7	52.7
음악감상	8	7.4	10.8	63.5
컴퓨터(게임 등)	12	11.1	16.2	79.7
영화 감상	1	.9	1.4	81.1
스포츠 활동	4	3.7	5.4	86.5
창작활동(음악, 그림, 글쓰기 등)	3	2.8	4.1	90.5
모임활동(종교행사, 친목)	2	1.9	2.7	93.2
여행	2	1.9	2.7	95.9
기타	3	2.8	4.1	100
합계	74	68.5	100	
결측	34	31.5		
합계	108	100		

##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응답결과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2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여가활동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에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한 비율이 72.0%에 달하고 있음. 부산 남구의 경우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을 합치면 25.7%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114] 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말 만족하지 않는다	2	1.9	2.9	2.9
만족하지 않는다	8	7.4	11.4	14.3
보통이다	42	38.9	60.0	74.3
만족한다	15	13.9	21.4	95.7
매우 만족한다	3	2.8	4.3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여가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

- 응답결과 : 여가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원하는 여가활동이 없음, 여가활동을 같이 할 사람이 없음 등이 각각 6명(18.8%)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결과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34.6%,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4.2%, '내가 원하는 여가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13.2%, '여가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2.2%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부산 남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으나 원하는 내용,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음

[표 II-115] 외출하지 못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2	1.9	6.3	6.3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 때문에	3	2.8	9.4	15.6
내가 원하는 여가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6	5.6	18.8	34.4
여가활동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6	5.6	18.8	53.1
여가시설이 안 좋아서 (안전하지 않거나 더러워서)	2	1.9	6.3	59.4
여가활동 장소가 멀거나 가는 교통이 불편해서	2	1.9	6.3	65.6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1	.9	3.1	68.8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6	5.6	18.8	87.5
기타	4	3.7	12.5	100
합계	32	29.6	100	
결측	76	70.4		
합계	108	100		

### ○ 희망하는 여가 생활

- 응답결과 : 희망하는 여가 생활로는 TV시청이 17명(24.3%)로 가장 높고 스포츠활동이 16명(22.9%)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여가생활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현재에도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인 TV시청으로서 전체의 39.2%를 차지하였고 이는 부산 남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16] 희망하는 여가생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TV 시청	17	15.7	24.3	24.3
음악감상	6	5.6	8.6	32.9
컴퓨터(게임 등)	10	9.3	14.3	47.1
영화 감상	7	6.5	10.0	57.1
스포츠 활동	16	14.8	22.9	80.0
창작활동(음악, 그림, 글쓰기 등)	6	5.6	8.6	88.6
동아리 활동	1	.9	1.4	90.0
모임활동(종교행사, 친목)	1	.9	1.4	91.4
여행	5	4.6	7.1	98.6
아무것도 하지 않음	1	.9	1.4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한 달 이내에 1회 이상 참여한 모임

- 응답결과 : 한 달 이내에 1회 이상 참여한 모임의 종류로는 종교활동이 25명(51%)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사회적 모임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7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종교활동 21.6%, 여가활동/문화활동/스포츠활동 5.1%, 동참/친교모임 1.3%, 자조모임 1.1%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국 평균의 경우 사회적 모임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부산 남구의 경우 종교활동이 과반 이상을 나타낼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음

[표 Ⅱ-117]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참여한 모임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종교 활동(교회, 성당, 절에 가기)	25	23.1	51.0	51.0
자조 모임	3	2.8	6.1	57.1
여가활동,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9	8.3	18.4	75.5
자원봉사 활동	2	1.9	4.1	79.6
정치모임 활동(사회운동단체, 장애인 운동단체 등 참여)	3	2.8	6.1	85.7
기타	6	5.6	12.2	98.0
없음	1	.9	2.0	100
합계	49	45.4	100	
결측	59	54.6		
합계	108	100		

### ○ 고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친구 유무

- 응답결과 : 고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음이 54명(83.1%)으로 친구가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71.2%였으며, 나머지 28.8%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하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표 Ⅱ-118]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친구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11	10.2	16.9	16.9
없음	54	50.0	83.1	100
합계	65	60.2	100	
결측	43	39.8		
합계	108	100		

## 자. 결혼과 양육 / 여성장애인 관련

### ○ 발달장애인 본인의 결혼 여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의 결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혼이 52명(98.1%)으로 기혼보다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미혼이 78.7%, 유배우자 13.1%, 사별 4.0%, 이혼 3.6%, 별거 0.5%, 미혼모/부 0.1%로 조사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전국 평균보다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I-119] 결혼상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혼	1	.9	1.9	1.9
미혼	52	48.1	98.1	100
합계	53	49.1	100	
결측	55	50.9		
합계	108	100		

### ○ 향후 결혼에 대한 희망 여부

- 응답결과 : 미혼인 경우 향후 결혼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50명(86.2%)이어서 결혼 희망보다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미혼 성인발달장애인의 22.2%는 결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이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인 13.8%만 결혼을 희망하고 있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치임

[표 II-120] 향후 결혼 희망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8	7.4	13.8	13.8
아니오	50	46.3	86.2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58	53.7	100	
결측	50	46.3		
합계	108	100		

### ○ 교제하는 이성 여부

- 응답결과 : 교제하는 이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는 경우가 41명(97.6%)으로 있는 경우보다 많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현재 사귀는 이성이 있는 경우는 9.1%임.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2.4%만 교제하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121] 교제하는 이성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1	.9	2.4	2.4
없음	41	38.0	97.6	100
합계	42	38.9	100	
결측	66	61.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본인의 결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본인의 결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결혼 후 독립을 위한 주거, 일상생활 등의 지원이 9명(2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이성을 만날 기회 지원'이 26.3%로 가장 많았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결혼 이후 안정적인 삶을 장기적 측면에서 예상하고 있다면 전국 자료는 지금 바로 만날 이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122] 결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결혼 후 독립을 위한 지원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9	8.3	26.5	26.5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및 직업생활 지원	6	5.6	17.6	44.1
발달장애인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4	3.7	11.8	55.9
기타	2	1.9	5.9	61.8
없음	13	12.0	38.2	100
합계	34	31.5	100	
결측	74	68.5		
합계	108	100		

## ○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응답결과 :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건강 혹은 장애상태로 인함이 21명(43.8%)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건강 혹은 장애상태로 인해'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산 남구 자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23]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2	1.9	4.2	4.2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8	7.4	16.7	20.8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3	2.8	6.3	27.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건강 혹은 장애상태로 인해	21	19.4	43.8	70.8
경제적으로 결혼비용, 주거마련 등이 어려워서	2	1.9	4.2	75.0
결혼생활, 직장생활의 동시 수행이 어려워서	4	3.7	8.3	83.3
기타	8	7.4	16.7	100
합계	48	44.4	100	
결측	60	55.6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가족 의견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원한다 해도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28명(51.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가 64.1%로 높아 부산 남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124] 발달장애인 결혼에 대한 가족의 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2	1.9	3.7	3.7
본인이 원한다면 동의한다	7	6.5	13.0	16.7
적당한 배우자가 있다면 해도 좋을 것이다	8	7.4	14.8	31.5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8	25.9	51.9	83.3
기타	9	8.3	16.7	100
합계	54	50.0	100	
결측	54	50.0		
합계	108	100		

## ○ 마지막 결혼 당시 발달장애인의 연령

- 응답결과 : 결혼한 발달장애인 중 마지막 결혼 당시의 연령을 묻은 결과 2명이 응답하였고 2명 모두 25세라고 답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결혼한 경험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결혼 연령을 알아보았는데, 25~29세에 결혼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아 부산 남구 자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25] 마지막 결혼 당시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세	2	1.9	100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결혼할 당시 발달장애인 본인의 장애 여부

- 응답결과 : 결혼할 당시 발달장애인 본인은 장애가 없었다고 답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는 결혼 당시 본인의 장애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 부산 남구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표 II-126] 결혼할 당시 본인의 장애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 없음	2	1.9	100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결혼할 당시 발달장애인 배우자의 장애 여부

- 응답결과 : 결혼할 당시 발달장애인의 배우자는 1명은 장애가 있었고, 1명은 장애가 없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를 보면 51.5%는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었다고 하여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단 부산 남구의 경우 응답 모수가 2명이어서 상호 간 직접 비교 및 해석에 무리가 있음

[표 II-127] 결혼할 당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 있음	1	.9	50.0	50.0
장애 없음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배우자의 장애 특성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배우자의 장애 유형에 답을 한 1명의 응답자는 해당 배우자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응답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결혼 당시 발달장애인 배우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2.8%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25.5%, 정신장애 11.4%, 호흡기장애 4.4%, 뇌병변장애 1.8%, 뇌전증장애 1.1% 등이어서 부산 남구 자료와 견주어볼 필요 있음

[표 II-128] 배우자 장애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신장애	1	.9	100	100
결측	107	99.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자녀 여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에게 자녀가 있는지 묻은 질문에 대해 1명의 응답자만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성인 발달장애인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1%였음.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녀수 비율이 낮은 것은 부산 남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29] 자녀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녀있음	1	.9	7.1	7.1
자녀없음	13	12.0	92.9	100
합계	14	13.0	100	
결측	94	87.0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자녀 수

- 응답결과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명의 응답자는 자녀 수가 1명이라고 응답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자녀 수는, 1명이 53.7%, 2명이 25.7%, 3명 이상이 20.6%로 나타남

[표 II-130] 자녀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명	1	.9	100	100
결측	107	99.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 여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자녀 1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 35.5%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응답함

[표 II-131] 자녀의 장애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 있음	1	.9	100	100
결측	107	99.1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자녀의 특성

- 응답결과 : 장애인 자녀의 성, 연령, 장애 특성에 대해 응답을 거부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47.8%, 여자가 68.4% 등이었으며 부산 남구의 경우 응답자가 없었으므로 상호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132] 장애인 자녀의 성, 연령, 장애특성

	빈도	퍼센트
무응답	108	108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의 양육을 맡길데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양육비가 걱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자녀를 양육,교육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13.9%, '경제적으로 양육비가 부담되어서'가 9.2%, '자녀 양육에 대한 주위 지원이 없어서'가 3.6%, '자녀와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가 2.4% 순으로 나타났음. 부산 남구의 경우 경제적 측면이 크지만 전국 평균 자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에 더 곤란을 겪고 있음

[표 II-133]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녀의 양육을 맡길 데가 없어서	1	.9	50.0	50.0
경제적으로 양육비가 부담되어서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 응답결과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활동지원사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11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발달장애에 맞춘 기초 성교육(35.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부산 남구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 참여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134]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발달장애에 맞춘 성교육	2	1.9	9.1	9.1
이성교제를 위한 교육과 지원	1	.9	4.5	13.6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	2	1.9	9.1	22.7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지원	3	2.8	13.6	36.4
활동지원사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	11	10.2	50.0	86.4
발달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2	1.9	9.1	95.5
기타	1	.9	4.5	100
합계	22	20.4	100	
결측	86	79.6		
합계	108	100		

## 차. 가족 내 돌봄

### ○ 발달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에는 모두 무응답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주중에 하루 평균 돌보는 시간은 6.4시간, 주말에 돌 보는 시간은 하루 8.6시간으로 조사되어 주말에 가족원 돌봄시간이 하루 평균 2.2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해당 시간에 모두 무응답하여 상호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표 II-135] 발달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

	빈도	퍼센트
무응답	108	100
합계	108	100

## ○ 주돌봄자(가족) 부재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의 유무

- 응답결과 : 주돌봄자(가족)가 부재할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원 여부에 대해 없다는 의견이 37명(52.9%)이 있다는 의견보다 소폭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28.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부산 남구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136] 주돌봄자(가족)의 부재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33	30.6	47.1	47.1
없음	37	34.3	52.9	100
합계	70	64.8	100	
결측	38	35.2		
합계	108	100		

## ○ 주돌봄자(가족) 부재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적인 곳

- 응답결과 : 주돌봄자(가족)가 부재할 경우 사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비동거 가족으로서 조부모, 친척 등이 19명(31.1%)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사적 영역에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동거 가구원이 33.6%로 가장 많음. 부산 남구의 경우 비동거 가족이 가장 높은 것과 다른 결과임

[표 II-137] 주돌봄자 부재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적인 곳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동거 가구원 (배우자, 자녀)	17	15.7	27.9	27.9
비동거 가족 (조부모, 친척 등)	19	17.6	31.1	59.0
이웃, 친구	3	2.8	4.9	63.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종교기관	1	.9	1.6	65.6
유료 도우미 활용	7	6.5	11.5	77.0
기타	2	1.9	3.3	80.3
없음	12	11.1	19.7	100
합계	61	56.5	100	
결측	47	43.5		
합계	108	100		

### ○ 주돌봄자(가족) 부재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인 곳

- 응답결과 : 주돌봄자(가족)가 부재할 경우 공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활동지원서비스 27명(47.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지원서비스 이용이 51.5%로 가장 많아서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Ⅱ-138] 주돌봄자 부재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곳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27	25.0	47.4	47.4
어린이집, 유치원	6	5.6	10.5	57.9
주단기보호시설	2	1.9	3.5	61.4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7	6.5	12.3	73.7
긴급돌봄서비스	1	.9	1.8	75.4
기타	1	.9	1.8	77.2
없음	13	12.0	22.8	100
합계	57	52.8	100	
결측	51	47.2		
합계	108	100		

## ○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 29명(38.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34.9%)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12.2%)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미래 설계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는 부산 남구 자료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39]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인 보호에 대한 지식 부족	6	5.6	7.9	7.9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	29	26.9	38.2	46.1
발달장애인의 직업 및 취업문제	7	6.5	9.2	55.3
발달장애인의 건강악화	2	1.9	2.6	57.9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3	2.8	3.9	61.8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	3	2.8	3.9	65.8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4	3.7	5.3	71.1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6	5.6	7.9	78.9
보호자의 건강악화	2	1.9	2.6	81.6
현재의 경제적 부담	6	5.6	7.9	89.5
미래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	1	.9	1.3	90.8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7	6.5	9.2	100
합계	76	70.4	100	
결측	32	29.6		
합계	108	100		

## 카. 차별 및 학대

### ○ 차별에 대한 느낌 유무

- 응답결과 : 차별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없음이 46명(62.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에서는 차별에 대한 느낌의 여부는 묻지 않았기에 본 자료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Ⅱ-140]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28	25.9	37.8	37.8
없음	46	42.6	62.2	100
합계	74	68.5	100	
결측	34	31.5		
합계	108	100		

### ○ 차별 경험시 해당 장소

- 응답결과 :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해당 장소가 어디였는지 묻은 질문에 대해 교육 기관 내 수업 및 교과 외 활동이 18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교육 기관 내 수업 및 교과 외 활동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7%로 차별 경험 중 그 비중이 가장 컸고 이는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 장소와 동일하였음. 다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여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표 Ⅱ-141] 차별받았다면 해당 장소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육 시설 이용 시	5	4.6	13.9	13.9
교육기관(초, 중, 고 포함) 내 수업 및 교과 외 활동 시	18	16.7	50.0	63.9
여가 문화, 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시	6	5.6	16.7	80.6
대중교통 이용 시	3	2.8	8.3	88.9
의료기관 이용 시	1	.9	2.8	91.7
보험제도 이용(계약, 보상 등) 시	2	1.9	5.6	97.2
투표 시	1	.9	2.8	100
합계	36	33.3	100	
결측	72	66.7		
합계	108	100		

## ○ 차별 경험시 대응 방식

- 응답결과 :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문제를 알리는 등 진정, 고발 등을 하였다는 사람이 19명(45.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56.3%로 가장 많아 부산 남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Ⅱ-142]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 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차별을 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	9	8.3	21.4	21.4
가족, 선생님,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5	4.6	11.9	33.3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문제를 알리는 등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19	17.6	45.2	78.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7	6.5	16.7	95.2
기타	2	1.9	4.8	100
합계	42	38.9	100	
결측	66	61.1		
합계	108	100		

### ○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 응답결과 :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많음이 38명(46.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많음' 20.0%, '약간 많음' 56.3% 등으로 나타나 차별에 대한 인식도는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43]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별로 없음	3	2.8	3.7	3.7
보통	14	13.0	17.1	20.7
약간 많음	38	35.2	46.3	67.1
매우 많음	27	25.0	32.9	100
합계	82	75.9	100	
결측	26	24.1		
합계	108	100		

##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 응답결과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49명(59.8%)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도 31.4%임.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144]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알지 못함	19	17.6	23.2	23.2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 모름	49	45.4	59.8	82.9
알고 있음	14	13.0	17.1	100
합계	82	75.9	100	
결측	26	24.1		
합계	108	100		

##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

- 응답결과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없음이 36명(65.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 피해 경험은 8.1%임

[표 II-145] (정서적 학대)폭력, 학대, 무시 등 피해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7	6.5	12.7	12.7
없음	36	33.3	65.5	7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모름	12	11.1	21.8	100
합계	55	50.9	100	
결측	53	49.1		
합계	108	100		

###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가해자 유형

- 응답결과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이 6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나 연인이 31.8%로 가장 많음. 부산 남구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전국 자료와 차이가 있음

[표 II-146] (정서적 학대)가해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가족	1	.9	8.3	8.3
친구나 연인	1	.9	8.3	16.7
교사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2	1.9	16.7	33.3
활동지원사 등 일상을 지원해 주는 사람	2	1.9	16.7	50.0
모르는 사람	6	5.6	50.0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대응 방안

- 응답결과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는 경우가 6명(5.6%)으로 가장 높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의 경우도 5명(41.7%)으로 높은 수치임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음.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47] (정서적 학대)피해시 대응 방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	5	4.6	41.7	41.7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	1	.9	8.3	50.0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6	5.6	50.0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상의한 사람

- 응답결과 :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상의한 사람은 가족이 5명(41.7%)으로 가장 높음. 상담하지 못한 경우도 4명(33.3%)으로 높은 수치임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상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으나 부산 남구의 경우 가족과 상의한 경우가 많았음

[표 Ⅱ-148] (정서적 학대)피해시 상의한 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상담하지 못했음	4	3.7	33.3	33.3
가족	5	4.6	41.7	75.0
친구, 연인, 이웃	1	.9	8.3	83.3
교사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1	.9	8.3	91.7
공무원(구청, 주민센터 등 직원)	1	.9	8.3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

- 응답결과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없음이 35명(81.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 피해 경험은 2.3%임

[표 Ⅱ-149] (신체적 학대)폭력, 학대, 무시 등 피해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4	3.7	9.3	9.3
없음	35	32.4	81.4	90.7
모름	4	3.7	9.3	100
합계	43	39.8	100	
결측	65	60.2		
합계	108	100		

##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가해자 유형

- 응답결과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이 2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친구나 연인이 33.0%로 가장 많았으나 부산 남구는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음

[표 II-150] (신체적 학대)가해자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친구나 연인	1	.9	20.0	20.0
교사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1	.9	20.0	40.0
활동지원사 등 일상을 지원해 주는 사람	1	.9	20.0	60.0
모르는 사람	2	1.9	4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대응 방안

- 응답결과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한 결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있었던 경우가 3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아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51] (신체적 학대)피해시 대응 방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	3	2.8	60.0	60.0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2	1.9	4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상의한 사람

- 응답결과 :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상의한 사람은 가족이 2명(40%), 상담하지 못한 경우도 2명(4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상담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0%임. 부산 남구의 경우도 상담하지 못한 경우와 가족에게 상담했다는 경우가 같은 비율로 나타남

[표 II-152] (신체적 학대)피해시 상의한 사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상담하지 못했음	2	1.9	40.0	40.0
가족	2	1.9	40.0	80.0
교사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1	.9	2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성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

- 응답결과 :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없음이 40명(97.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성적 학대의 피해 경험은 0.4%임

[표 II-153] (성적 학대)폭력, 학대, 무시 등 피해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40	37.0	97.6	97.6
모름	1	.9	2.4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41	38.0	100	
결측	67	62.0		
합계	108	100		

### ○ (성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가해자 유형

- 응답결과 :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모르는 사람이 33.6%로 가장 많음

[표 II-154] (성적 학대)가해자 유형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성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대응 방안

- 응답결과 :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음

[표 II-155] (성적 학대)피해시 대응 방안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성적 학대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상의한 사람

- 응답결과 :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상의한 사람과 관련하여 모두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상담을 한 경우 가족과 상담한 경우가 55.7%로 가장 많음

[표 II-156] (성적 학대)피해시 상의한 사람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

- 응답결과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없음이 40명(97.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방임 및 유기와 관련된 학대 경험은 0.4%임

[표 II-157] (방임 및 유기)폭력, 학대, 무시 등 피해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40	37.0	97.6	97.6
모름	1	.9	2.4	100
합계	41	38.0	100	
결측	67	62.0		
합계	108	100		

###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가해자 유형

- 응답결과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를 경험하였을 때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친구나 연인이 64.2%로 가장 많음

[표 II-158] (방임 및 유기)가해자 유형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대응 방안

- 응답결과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경찰, 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많음

[표 II-159] (방임 및 유기)피해시 대응 방안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상의한 사람

- 응답결과 : 방임 및 유기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상의한 사람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가족과 상의한 경우가 93.1%로 가장 높음

[표 II-160] (방임 및 유기)피해시 상의한 사람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

- 응답결과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없음이 40명(97.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피해 경험은 0.7%임

[표 II-161] (경제적 착취)폭력, 학대, 무시 등 피해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40	37.0	97.6	97.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모름	1	.9	2.4	100
합계	41	38.0	100	
결측	67	62.0		
합계	108	100		

###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가해자 유형

- 응답결과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친구나 연인이 35.4%로 가장 많음

[표 II-162] (경제적 착취)가해자 유형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대응 방안

- 응답결과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음

[표 II-163] (경제적 착취)피해시 대응 방안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폭력, 학대, 무시 등의 피해시 상의한 사람

- 응답결과 :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폭력, 학대, 무시 등을 경험하였을 때 상의한 사람과 관련하여 아무도 응답하지 않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친구, 연인, 이웃과 상담한 경우가 50.1%로 가장 많음

[표 II-164] (경제적 착취)피해시 상의한 사람

	빈도	퍼센트
결측	108	100

## ○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 응답결과 :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이 31명(41.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에 대한 응답이 33.0%로 가장 높아 부산 남구 자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65]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중요한 것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31	28.7	41.3	41.3
법률적 지원(절차보조사업 등) 확대	18	16.7	24.0	65.3
제도적 사회참여 방안 마련(당사자 참여 의무화)	14	13.0	18.7	84.0
권익옹호 전문가 양성	2	1.9	2.7	86.7
차별 및 학대 신고제도 의무화 및 범위확대	3	2.8	4.0	90.7
당사자 교육(자기 옹호, 학대 대응 방법, 안전교육 등) 강화	7	6.5	9.3	100
합계	75	69.4	100	
결측	33	30.6		
합계	108	100		

## 타. 복지서비스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아동수당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아동수당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9.6%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66]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아동수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6.7	16.7
약간 불만	2	1.9	33.3	50.0
보통	3	2.8	50.0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연금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연금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19명(47.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0.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연금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67]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연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2	1.9	5.0	5.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0	9.3	25.0	30.0
보통	19	17.6	47.5	77.5
약간 만족	8	7.4	20.0	97.5
매우 만족	1	.9	2.5	100
합계	40	37.0	100	
결측	68	63.0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명(7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4.4%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68]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5.0	25.0
보통	3	2.8	75.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아 보육료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아 보육료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0.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69]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아 보육료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6.7	16.7
약간 불만	3	2.8	50.0	66.7
보통	2	1.9	33.3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6명(46.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6.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0]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의료비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2	1.9	15.4	15.4
약간 불만	2	1.9	15.4	30.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6	5.6	46.2	76.9
약간 만족	2	1.9	15.4	92.3
매우 만족	1	.9	7.7	100
합계	13	12.0	100	
결측	95	88.0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4명(36.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1.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71]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3	2.8	27.3	27.3
약간 불만	4	3.7	36.4	63.6
보통	3	2.8	27.3	90.9
약간 만족	1	.9	9.1	100
합계	11	10.2	100	
결측	97	89.8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검사비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검사비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불만 3명(37.5%), 보통 3명(37.5%)이 동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3.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 검사비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72]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검사비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3	2.8	37.5	37.5
약간 불만	2	1.9	25.0	62.5
보통	3	2.8	37.5	100
합계	8	7.4	100	
결측	100	92.6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불만이 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6.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73]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3	2.8	50.0	50.0
보통	2	1.9	33.3	83.3
약간 만족	1	.9	16.7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재활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5명(41.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0.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4]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재활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16.7	16.7
보통	3	2.8	25.0	41.7
약간 만족	5	4.6	41.7	83.3
매우 만족	2	1.9	16.7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명(36.4%), 약간만족 4명(36.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7.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5]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보조기기 무료교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18.2	18.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4	3.7	36.4	54.5
약간 만족	4	3.7	36.4	90.9
매우 만족	1	.9	9.1	100
합계	11	10.2	100	
결측	97	89.8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5명(41.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9.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6]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적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8.3	8.3
약간 불만	2	1.9	16.7	25.0
보통	5	4.6	41.7	66.7
약간 만족	4	3.7	33.3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13명(33.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8.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7]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6	2.6
약간 불만	4	3.7	10.3	12.8
보통	13	12.0	33.3	46.2
약간 만족	12	11.1	30.8	76.9
매우 만족	9	8.3	23.1	100
합계	39	36.1	100	
결측	69	63.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8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6%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자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78]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3	2.8	15.0	15.0
보통	3	2.8	15.0	30.0
약간 만족	8	7.4	40.0	70.0
매우 만족	6	5.6	30.0	100
합계	20	18.5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결측	88	81.5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5명(62.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8.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79]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12.5	12.5
보통	5	4.6	62.5	75.0
약간 만족	2	1.9	25.0	100
합계	8	7.4	100	
결측	100	92.6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명(42.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8.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80]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4.3	14.3
약간 불만	2	1.9	28.6	42.9
보통	3	2.8	42.9	85.7
매우 만족	1	.9	14.3	100
합계	7	6.5	100	
결측	101	93.5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맞춤 직업훈련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맞춤 직업훈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불만이 3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5.4%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맞춤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81]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맞춤 직업훈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0.0	20.0
약간 불만	3	2.8	60.0	80.0
보통	1	.9	2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지원고용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지원고용 관련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3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3.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지원고용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82]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지원고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0.0	20.0
약간 불만	3	2.8	60.0	80.0
보통	1	.9	2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불만이 2명(33.3%), 보통이 2명(33.3%)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9.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83]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근로지원인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2	1.9	33.3	33.3
약간 불만	1	.9	16.7	50.0
보통	2	1.9	33.3	83.3
약간 만족	1	.9	16.7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인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2.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자립 체험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84]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33.3	33.3
약간 불만	2	1.9	66.7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1명(50%), 보통이 1명(50.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40.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85]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86]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66.7	66.7
약간 만족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87]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2	1.9	66.7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5명(33.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1.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 장애인 갖고 휴식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Ⅱ-188]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6.7	6.7
약간 불만	4	3.7	26.7	33.3
보통	5	4.6	33.3	66.7
약간 만족	2	1.9	13.3	80.0
매우 만족	3	2.8	20.0	100
합계	15	13.9	100	
결측	93	86.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5명(41.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6.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89]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8.3	8.3
약간 불만	2	1.9	16.7	25.0
보통	5	4.6	41.7	66.7
약간 만족	3	2.8	25.0	91.7
매우 만족	1	.9	8.3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 비용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3.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90]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6.7	16.7
약간 불만	3	2.8	50.0	66.7
보통	2	1.9	33.3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주택공급 관련 장애인 가산점 부여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중 주택공급 관련 장애인 가산점 부여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모두 각각 2명(28.6%)씩 동률임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8.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주택공급 관련 장애인 가산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91] 장애복지사업 서비스 만족도-주택공급 관련 장애인 가산점 부여(우선·특별공급 포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4.3	14.3
약간 불만	2	1.9	28.6	42.9
보통	2	1.9	28.6	71.4
약간 만족	2	1.9	28.6	100
합계	7	6.5	100	
결측	101	93.5		
합계	108	100		

##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사업

- 응답결과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장애인 연금이 21명(26.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면, '장애인연금'(7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59.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41.0%), '장애검사비 지원'(29.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28.7%) 순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92]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사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아동수당	11	10.2	13.8	13.8
장애인연금	21	19.4	26.3	4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2.8	3.8	43.8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9	1.3	45.0
장애인 의료비 지원	9	8.3	11.3	56.3
장애검사비 지원	2	1.9	2.5	58.8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	1.9	2.5	61.3
발달재활서비스	4	3.7	5.0	66.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7	6.5	8.8	75.0
주간활동서비스	5	4.6	6.3	81.3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	.9	1.3	82.5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3	2.8	3.8	86.3
맞춤 직업훈련	1	.9	1.3	87.5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	8	7.4	10.0	97.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9	1.3	98.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1	.9	1.3	100
합계	80	74.1	100	
결측	28	25.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복지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복지관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19명(43.2%)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4.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93]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복지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3	2.3
보통	9	8.3	20.5	22.7
약간 만족	15	13.9	34.1	56.8
매우 만족	19	17.6	43.2	100
합계	44	40.7	100	
결측	64	59.3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14명(60.9%)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3.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94]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4	3.7	17.4	17.4
약간 만족	5	4.6	21.7	39.1
매우 만족	14	13.0	60.9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23	21.3	100	
결측	85	78.7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Ⅱ-195]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5.0	25.0
보통	1	.9	25.0	50.0
약간 만족	2	1.9	50.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체육시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체육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약간만족이 각각 3명(27.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96]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체육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9.1	9.1
약간 불만	3	2.8	27.3	36.4
보통	2	1.9	18.2	54.5
약간 만족	3	2.8	27.3	81.8
매우 만족	2	1.9	18.2	100
합계	11	10.2	100	
결측	97	89.8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10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1.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197]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2	1.9	8.0	8.0
약간 불만	3	2.8	12.0	20.0
보통	7	6.5	28.0	48.0
약간 만족	3	2.8	12.0	60.0
매우 만족	10	9.3	40.0	100
합계	25	23.1	100	
결측	83	76.9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과 보통이 각각 1명(5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9.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98]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약간불만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9.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199]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66.7	66.7
약간 만족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이 각각 1명(5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1.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0]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산하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이 각각 1명(33.3%)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4.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정신 건강증진센터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1]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정신건강증진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1	.9	33.3	66.7
약간 만족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재활병의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재활병의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약간만족이 2명(40%)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0.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재활병의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2]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재활병의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0.0	20.0
보통	2	1.9	40.0	60.0
약간 만족	2	1.9	4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1.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3]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5.0	25.0
약간 불만	2	1.9	50.0	75.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만족	1	.9	25.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전용 치과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장애인 전용 치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약간만족이 2명(33.3%)씩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49.3%, 매우만족이 45.7%로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전용 치과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4]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전용 치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16.7	16.7
보통	2	1.9	33.3	50.0
약간 만족	2	1.9	33.3	83.3
매우 만족	1	.9	16.7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과 보통이 각각 1명(50%)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5]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정신재활시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정신재활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과 약간만족이 각각 1명(50%)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8.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정신재활시설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6]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정신재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	.9	50.0	50.0
약간 만족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전문/통합 어린이집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약간만족이 각각 3명(37.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5.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7]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12.5	12.5
보통	3	2.8	37.5	50.0
약간 만족	3	2.8	37.5	87.5
매우 만족	1	.9	12.5	100
합계	8	7.4	100	
결측	100	92.6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2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5.1%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8]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0.0	20.0
보통	1	.9	20.0	40.0
약간 만족	2	1.9	40.0	80.0
매우 만족	1	.9	20.0	1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10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5.4%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09]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2	1.9	100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약간만족이 각각 1명(50%)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8.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10]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	.9	50.0	50.0

약간 만족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4.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11]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0.0	20.0
보통	2	1.9	40.0	60.0
약간 만족	1	.9	20.0	80.0
매우 만족	1	.9	2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과 보통이 각각 1명(50%)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7.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12]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3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7.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213]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특수교육지원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6.7	16.7
보통	2	1.9	33.3	50.0
약간 만족	3	2.8	50.0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6.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 역시 만족도가 높아 전국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214]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약간 만족	2	1.9	66.7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이 각각 1명(59%)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매우 불만족이 50.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관련한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

[표 II-215]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이 각각 1명(33.3%)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7.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16]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평생 교육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포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1	.9	33.3	66.7
약간 만족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 응답결과 : 장애복지시설 이용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6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9.6%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됨

[표 II-217] 장애복지시설 이용 만족도\_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6.7	6.7
약간 불만	1	.9	6.7	13.3
보통	2	1.9	13.3	26.7
약간 만족	5	4.6	33.3	60.0
매우 만족	6	5.6	40.0	100
합계	15	13.9	100	
결측	93	86.1		
합계	108	100		

##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시설

- 응답결과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 복지관이 34명(44.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관'(39.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치과'(34.7%), '장애인체육시설' (30.7%),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9.9%),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29.0%), '발달장애인지원센터'(26.2%) 순으로 나타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 역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 전국 평균과 결을 같이 하고 있음

[표 II-218]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시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인복지관	34	31.5	44.7	44.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	10.2	14.5	59.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9	1.3	60.5
장애인 체육시설	2	1.9	2.6	63.2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장애인 콜택시, 해피콜 등)	3	2.8	3.9	67.1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	.9	1.3	68.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	5.6	7.9	76.3
정신건강증진센터	2	1.9	2.6	78.9
장애인 재활병의원	1	.9	1.3	80.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	2.8	3.9	84.2
장애인전용치과	3	2.8	3.9	88.2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1	.9	1.3	89.5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2	1.9	2.6	92.1
특수교육지원센터	1	.9	1.3	93.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포함)	3	2.8	3.9	9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1.9	2.6	100
합계	76	70.4	100	
결측	32	29.6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진로 및 전환교육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진로 및 전환교육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8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진로 및 전환교육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19]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진로 및 전환 교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2.5	12.5
보통	4	3.7	50.0	62.5
약간 만족	3	2.8	37.5	100
합계	8	7.4	100	
결측	100	92.6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자립생활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자립생활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명(4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6.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0]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자립생활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0.0	10.0
약간 불만	1	.9	10.0	20.0
보통	4	3.7	40.0	6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만족	1	.9	10.0	70.0
매우 만족	3	2.8	30.0	100
합계	10	9.3	100	
결측	98	90.7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도전행동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도전행동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3.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도전행동 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1]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도전행동 지원(ABA프로그램, 의사소통 지원, 낮 활동 지원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16.7	16.7
보통	4	3.7	66.7	83.3
약간 만족	1	.9	16.7	100
합계	6	5.6	100	
결측	102	94.4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11명(47.8%)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44%, 매우만족이 44.5%로 높음. 부산 남구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2]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성교육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4.3	4.3
보통	11	10.2	47.8	52.2
약간 만족	6	5.6	26.1	78.3
매우 만족	5	4.6	21.7	100
합계	23	21.3	100	
결측	85	78.7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6명(37.5%)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2.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3]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건강관리 프로그램(운동, 비만 관리, 치매예방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6.3	6.3
보통	6	5.6	37.5	43.8
약간 만족	4	3.7	25.0	68.8
매우 만족	5	4.6	31.3	100
합계	16	14.8	100	
결측	92	85.2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자조 모임 및 자기옹호 훈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자조 모임 및 자기옹호 훈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5.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자조 모임 및 자기옹호 훈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4]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자조 모임 및 자기옹호 훈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5.0	25.0
보통	2	1.9	50.0	75.0
매우 만족	1	.9	25.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46.7%, 매우만족은 49.1%로 높음. 부산 남구는 학령기 대상 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5]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5.0	25.0
약간 불만	1	.9	25.0	5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만족	2	1.9	50.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대학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대학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100%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6]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대학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66.7	66.7
보통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직업재활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직업재활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5명(35.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100%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227]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직업재활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고용, 작업 활동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7.1	7.1
보통	4	3.7	28.6	35.7
약간 만족	4	3.7	28.6	64.3
매우 만족	5	4.6	35.7	100
합계	14	13.0	100	
결측	94	87.0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정보화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정보화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5.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정보화 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8]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정보화 지원(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5.0	25.0
보통	2	1.9	50.0	75.0
약간 만족	1	.9	25.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지역주민과의 통합 활동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지역주민과의 통합 활동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10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매우만족이 92.2%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지역주민과의 통합활동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29]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지역주민과의 통합 활동(스몰스파크, 관계망 형성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100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시민옹호인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시민옹호인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이 2명(100%)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옹호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230]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시민옹호인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2	1.9	100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기혼 장애인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기혼 장애인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매우만족이 64.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기혼 장애인 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1]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기혼 장애인 지원(가사, 출산, 양육 지원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2	1.9	66.7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2명(66.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61.6%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2]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보조기기 사용 훈련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2	1.9	66.7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재가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이 2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7.2%로 가장 높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산 남구는 재가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3]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재가서비스(가사 지원, 반찬서비스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5.0	25.0
보통	1	.9	25.0	50.0
매우 만족	2	1.9	50.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이 각각 1명(50%)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234]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출산 및 양육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노후설계 및 준비지원 관련)

- 응답결과 : 지역사회 서비스 중 노후설계 및 준비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이 각각 1명(33.3%)씩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100%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노후설계 및 준비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5]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노후설계 및 준비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33.3	33.3
보통	1	.9	33.3	66.7
약간 만족	1	.9	33.3	100
합계	3	2.8	100	
결측	105	97.2		
합계	108	100		

##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지역사회 서비스

- 응답결과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지역사회 서비스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33명(42.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지역서비스를 살펴보면, '치료·재활서비스' (4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34.1%), '성인 대상 음악, 미술, 체육, 놀이 등 낮 활동'(29.5%), '자립생활프로그램'(28.8%), '노후설계 및 준비지원'(27.9%), '직업재활서비스', '재가서비스'(25.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0-17세'는 '치료·재활서비스'(74.8%), '교육서비스' (40.0%) 등을, '18-49세'는 '치료·재활서비스'(37.0%), '건강관리프로그램'(36.4%), '성인 대상 음악, 미술, 체육, 놀이 등 낮 활동'(36.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자립 생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전국 자료에서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이 있어 서로 차이가 있음

[표 II-236]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지역사회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진로 및 전환 교육	11	10.2	14.1	14.1
자립생활 프로그램	33	30.6	42.3	56.4
도전행동 지원(ABA프로그램, 의사소통 지원, 낮 활동 지원 등)	7	6.5	9.0	65.4
건강관리 프로그램(운동, 비만 관리, 치매예방 등)	12	11.1	15.4	80.8
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6	5.6	7.7	88.5
직업재활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고용, 작업 활동 등)	3	2.8	3.8	92.3
정보화 지원(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1	.9	1.3	93.6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보조기기 사용 훈련 등)	2	1.9	2.6	96.2
재가서비스(가사 지원, 반찬서비스 등)	1	.9	1.3	97.4
노후설계 및 준비 지원	2	1.9	2.6	100
합계	78	72.2	100	
결측	30	27.8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정보제공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정보제공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8명(5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5.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7]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정보 제공(교육 및 돌봄, 진로 관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6.3	6.3
약간 불만	1	.9	6.3	12.5
보통	8	7.4	50.0	62.5
약간 만족	3	2.8	18.8	81.3
매우 만족	3	2.8	18.8	100
합계	16	14.8	100	
결측	92	85.2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부모교육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부모교육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만족이 6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9.5%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부모 교육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8]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부모 교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0.0	10.0
보통	3	2.8	30.0	40.0
약간 만족	6	5.6	60.0	100
합계	10	9.3	100	
결측	98	90.7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일시보호 서비스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일시보호 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불만,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이 각각 1명(25%)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2.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일시 보호 서비스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39]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일시 보호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25.0	25.0
보통	1	.9	25.0	50.0
약간 만족	1	.9	25.0	75.0
매우 만족	1	.9	25.0	100
합계	4	3.7	100	
결측	104	96.3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이 각각 1명(50%)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1.4%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형제 자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0]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족/부모상담 및 치료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가족/부모상담 및 치료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명(60%)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1.8%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가족/부모 상담 및 치료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1]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가족/부모 상담 및 치료(심리, 가족치료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20.0	20.0
보통	3	2.8	60.0	80.0
약간 만족	1	.9	20.0	100
합계	5	4.6	100	
결측	103	95.4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취업 지원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취업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명(44.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2.3%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취업 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2]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취업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	1	.9	11.1	11.1
약간 불만	1	.9	11.1	22.2
보통	4	3.7	44.4	66.7
약간 만족	1	.9	11.1	77.8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만족	2	1.9	22.2	100
합계	9	8.3	100	
결측	99	91.7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족휴식 및 여가지원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가족 휴식 및 여가 지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매우만족이 각각 4명(33.3%)씩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73.7%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가족 휴식 및 여가지원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가족 휴식 및 여가 지원(돌봄 지원, 여가·문화 활동, 가족 여행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4	3.7	33.3	33.3
보통	2	1.9	16.7	50.0
약간 만족	2	1.9	16.7	66.7
매우 만족	4	3.7	33.3	100
합계	12	11.1	100	
결측	96	88.9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자조모임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자조모임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명(36.4%)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94%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자조모임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4]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자조 모임(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가족 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9.1	9.1
보통	4	3.7	36.4	45.5
약간 만족	3	2.8	27.3	72.7
매우 만족	3	2.8	27.3	100
합계	11	10.2	100	
결측	97	89.8		
합계	108	100		

###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미래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 관련)

- 응답결과 :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중 미래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불만, 보통이 각각 1명(50%)씩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만족이 57.9%로 가장 높음. 부산 남구는 미래 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임

[표 II-245]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_자녀 미래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불만	1	.9	50.0	50.0
보통	1	.9	50.0	100
합계	2	1.9	100	
결측	106	98.1		
합계	108	100		

##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 응답결과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로 교육, 돌봄, 진로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29명(38.7%)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가족 대상 지역서비스를 살펴보면, '정보 제공'(4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가족 휴식 및 여가 지원'(38.9%), '가족/부모 상담 및 치료'(30.4%), '자녀 미래 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2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 역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전국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246]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보 제공(교육 및 돌봄, 진로 관련)	29	26.9	38.7	38.7
부모 교육	4	3.7	5.3	44.0
일시 보호 서비스	10	9.3	13.3	57.3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2	1.9	2.7	60.0
가족/부모 상담 및 치료(심리, 가족치료 등)	4	3.7	5.3	65.3
취업 지원	5	4.6	6.7	72.0
가족 휴식 및 여가 지원 (돌봄 지원, 여가·문화 활동, 가족 여행 등)	14	13.0	18.7	90.7
자녀 미래설계 및 준비 프로그램	7	6.5	9.3	100
합계	75	69.4	100	
결측	33	30.6		
합계	108	100		

## ○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 응답결과 :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35명(47.3%)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58.4%)가 가장 높아 부산 남구 자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247] 복지서비스 및 시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35	32.4	47.3	47.3
서비스 시간(금액)이 부족해서	5	4.6	6.8	54.1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해서	5	4.6	6.8	60.8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	12.0	17.6	78.4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선정 시 탈락 등)	1	.9	1.4	79.7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이용을 거부당해서	2	1.9	2.7	82.4
주변에 서비스 기관이나 인력이 없어서	6	5.6	8.1	90.5
서비스 질이 낮아서	1	.9	1.4	91.9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적이 있거나 걱정되어서	1	.9	1.4	93.2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등)이 비싸서	2	1.9	2.7	95.9
기타	3	2.8	4.1	100
합계	74	68.5	100	
결측	34	31.5		
합계	108	100		

## ○ 최근 1년간 활용한 복지서비스 총금액

- 응답결과 : 최근 1년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총금액은 2만원이 8명(18.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는 총금액으로 조사되지 않아 본 자료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표 II-248] 최근 1년간 복지서비스에 사용한 총금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만원	1	.9	2.3	2.3
2만원	8	7.4	18.6	20.9
3만원	3	2.8	7.0	27.9
4만원	5	4.6	11.6	39.5
5만원	1	.9	2.3	41.9
6만원	4	3.7	9.3	51.2
7만원	1	.9	2.3	53.5
8만원	3	2.8	7.0	60.5
9만원	1	.9	2.3	62.8
10만원	2	1.9	4.7	67.4
15만원	1	.9	2.3	69.8
16만원	1	.9	2.3	72.1
18만원	4	3.7	9.3	81.4
19만원	1	.9	2.3	83.7
20만원	1	.9	2.3	86.0
21만원	1	.9	2.3	88.4
28만원	2	1.9	4.7	93.0
37만원	1	.9	2.3	95.3
100만원	2	1.9	4.7	100
합계	43	39.8	100	
결측	65	60.2		
합계	108	100		

## ○ 복지정보 취득 경로

- 응답결과 : 복지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장애인(부모) 동료로부터 얻는다는 사람이 34명(43.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복지정보를 '행정복지센터 등 정부기관'(27.4%)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정기관보다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다른 부모, 언론 매체, 복지기관 등에서 정보 습득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II-249] 복지정보 취득 경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보매체(언론매체, 인터넷 등)	16	14.8	20.5	20.5
장애인(부모) 동료	34	31.5	43.6	64.1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5	4.6	6.4	70.5
장애인복지기관	18	16.7	23.1	93.6
친척, 친구, 이웃	3	2.8	3.8	97.4
복지 관련 정보지	2	1.9	2.6	100
합계	78	72.2	100	
결측	30	27.8		
합계	1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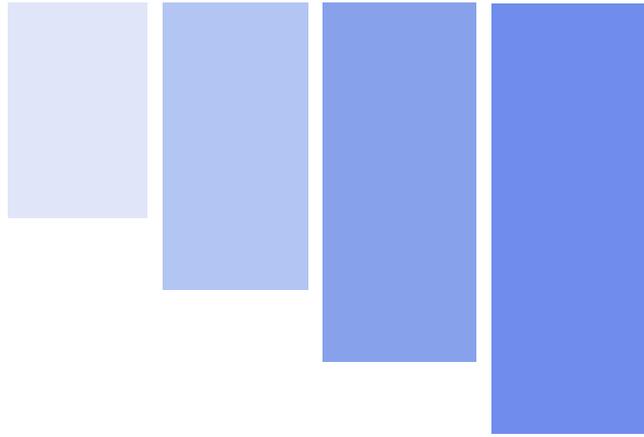
##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희망하는 내용

- 응답결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은 소득보장이 30명(36.6%)으로 가장 높음
- 전국단위 비교 : 전국단위 조사 결과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소득보장' (48.1%)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

보장'(16.0%), '주거보장(6.7%), '고용보장'(5.8%), '안전한 생활보장'(5.1%) 순으로 나타나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II-250]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소득보장	30	27.8	36.6	36.6
의료보장	15	13.9	18.3	54.9
고용보장	5	4.6	6.1	61.0
주거보장	5	4.6	6.1	67.1
교육/보육 보장	6	5.6	7.3	74.4
장애인 인권보장	6	5.6	7.3	81.7
장애인 건강보장	1	.9	1.2	82.9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보장	1	.9	1.2	84.1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3	2.8	3.7	87.8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5	4.6	6.1	93.9
안전한 생활 보장	4	3.7	4.9	98.8
기타	1	.9	1.2	100
합계	82	75.9	100	
결측	26	24.1		
합계	108	100		



## 제3장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지원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1. 조사 개요

-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현황을 조사
- 본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공적 급여와 복지 서비스'로 정의하고, 2022년 기준으로 17개 시도에서 어떠한 지원서비스가 실시되었는지 확인
- 자료 수집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
- 지원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지의 주요 내용

[표 Ⅲ-1]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재원별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또는 중앙 및 지자체 매칭 재원 서비스</li> <li>• 시도 재원 서비스</li> <li>•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재원 서비스</li> <li>• 시군구 재원 서비스</li> </ul>
대표적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도별 대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li> </ul>
코로나 시기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도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추가 또는 신설한 서비스</li> </ul>
향후 발달장애인 필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도별 발달장애인 필요 지원 서비스</li> </ul>

- 자료 분석은 시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동일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제시

- 지원 영역은 '장애 진단 및 조기 개입', '보육 및 교육',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자기 결정 및 미래준비', '경제활동', '사회참여', '결혼과 양육', '가족 내 돌봄', '학대와 차별'
- 분석결과는 지원 영역별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공적 급여 및 복지서비스이며,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 또는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서비스 기관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 2. 분석 결과

### 가. 지원영역별 지원서비스

#### ○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 국고, 지자체 재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과 진단 이후 발달 장애인과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 멘토링 및 부모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 이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진단 이후 조기 개입을 목적으로 한 개인별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기 개입에 필요한 재활.치료서비스가 영유아기와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 장애 발생 후 필요한 중앙 차원의 재활.치료서비스는 부재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장애 진단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크게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외 장애아동 및 성인기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배송료 지원 등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경우 도 차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원

-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언어, 심리,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 일부 지역(과천시 등)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재활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
- 충북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진단, 진단 후 조기개입에 대한 상담 제공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

## ○ 보육 및 교육

### □ 국고, 지자체 재원

- 중앙정부 또는 중앙 및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진행되는 보육 및 교육관련 지원서비스에는 보육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음
- 교육 및 방과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이 있음
- 보육·교육영역 지원서비스의 특성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유아 또는 저학년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중고등부 또는 전공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 전환기 시점에 반드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과 특화된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할 때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재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장애 보육 및 교육관련 서비스는 크게 장애학생 대상 방과 후 또는 방학중 돌봄과 전환기 교육,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이 포함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문화예술,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는 경향
- 서울(강북구)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교육 사업을 추진
- 대구(북구, 수성구)와 경기(시흥시), 충북 지역의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지역 서비스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 다수의 지역(예: 경기, 충북 등)에서 관련 교육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 중

## ○ 건강 및 의료

### □ 국고, 지자체 재원

- 건강 및 의료영역의 지원서비스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등의 비용 지원이 있으며,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는 소득과 연령 기준이 있어 발달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범 적용 중이거나 제도 초기 상황이어서 서비스 규모와 접근성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건강 및 의료 영역의 경우에는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검진 및 치료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지원 방식 및 환경 개선이 반드시 요구됨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는 크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거나(울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경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강원: 기초수급자 등) 치과 치료에 대한 지원(서울, 경기, 경남)이 실시

- 충북과 경남 지역의 경우 장애 여성을 위한 친화적인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원활한 진료와 편의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서울, 울산, 강원 등의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전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제주 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월 보험료(상해보험)를 지원

## ○ 일상생활

### □ 국고, 지자체 재원

-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또는 중앙 및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진행되는 주요 지원서비스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및 행동지원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지원, 도전행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
- 동일한 내용과 지원 방식의 단일 지원서비스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연령 및 장애수준에 따른 서비스 모델이 요구
-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수준 등을 고려한 낮활동 지원에 대한 다양한 모델 고려 필요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별로 실시된 일상생활 영역의 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 광역 및 기초 단위로 추가 지원

- 인천, 경기, 충북,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최종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보다 다양한 시도가 진행
- 서울시의 경우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종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챌린지2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급
-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최종증 장애인의 돌봄과 낮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
- 도전행동, 중복장애 등이 수반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중앙차원에서 제도화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 필요

## ○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 □ 국고, 지자체 재원

-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선임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립시 필요한 주택 확보 및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등
- 2021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는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
-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영역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지원
- 동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들이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시설 및 재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개발될 필요

- 전국적으로 자립생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을 활성화해야 함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영역의 지원 서비스는 크게 자립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탈시설 및 원가정 독립을 위한 주거 확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권익옹호 및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구분
-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립생활 준비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자립홈 등의 주택 지원과 주거 기반 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지역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이 연계되어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 충청지역에서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교육을 진행
- 자기결정과 옹호와 관련하여 대구, 경기, 충북, 경북 지역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자기권리주장 등을, 강원, 제주지역 등에서는 장애인의 자조 모임 등을, 서울지역은 시민옹호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옹호망을 기반으로 권리보장 및 의사결정 지원
-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택확보, 지역사회생활 지원, 자기결정, 권익옹호 등 다양한 지원들이 실시
-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지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될 필요 있음
- 학령기 때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한 준비가 진행되고, 성인기 진입 전후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개별에게 필요한 지역 기반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될 필요
- 지역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지자체 지원서비스는 세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소 산발적이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진행

## ○ 경제활동

## □ 국고, 지자체 재원

- 경제활동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중앙 및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실시된 주요 지원서비스에는 크게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과 취업 진입과 유지관련 지원으로 구분
- 소득보전을 위한 주요 지원은 '장애인 연금' 등이 해당되며, 취업진입과 유지를 위한 지원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장 맞춤형 취업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등
- 경제활동 영역의 대부분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전체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
- 단시간 근로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일정 정도의 소득이 보전될 필요
- 장애인연금의 자격 기준과 지급액은 전반적으로 소득보장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
- 취업관련 지원서비스의 경우 주 서비스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서비스 의존도가 높음
- 발달장애인은 장애수준에 따라 직업능력의 개별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취업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개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소득보장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서 대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등으로 구분

- 일자리 창출의 경우 서울, 울산지역에서는 관내 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지원
- 지자체 차원에서 중증 재가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재택 일자리를 제공
- 직업훈련 및 교육의 경우에는 다수 지역에서 장애청소년 및 성인 초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탐색 및 체험, 바리스타 등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지원
- 경북지역에서는 원거리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간 동안 거주할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연계주택 운영' 사업 추진
- 자체의 취업지원은 예전과 다르게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지원 또는 사업체 현장에서 일정 기간 실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일정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된 경제활동영역의 지원서비스는 소득보장의 경우 국고 지원금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실시
- 취업지원에서 있어서는 장애유형과 수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세분화된 취업지원이 실시

## ○ 사회참여

### □ 국고, 지자체 재원

- 사회참여 영역의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 관계망, 지역사회 참여, 정보 접근, 선거권, 문화예술 등 지역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급여와 복지서비스'로 정의
- 사회참여 관련 중앙정부 또는 중앙 및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실시된 주요 지원서비스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이 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지원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소득기준, 장애 수준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사회참여영역의 지원은 중앙차원의 지원보다 다양하게 실시
- 이동지원, 관계망 형성, 정보접근 지원, 지역환경 개선 등으로 구분
- 이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가 특정 대상층을 중심으로 추가 이동지원을 시행
-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무료 셔틀버스, 돌봄 택시, 이동편의차량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고, 인천, 경기, 충북, 제주 지역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
- 지역 관계망 형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활동 등을 지원
- 광주, 강원, 충북 지역에서는 장애인이 주도하는 지역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고, 경기와 제주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여가생활을 지원
- 충북,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장애인 조력활동 지원사업 등) 및 행사(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 등)를 실시
- 정보접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지역 등에서 장애인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거나 특히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선 방송료를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와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제공
- 경기 안산시의 경우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경남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과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사회 참여를 지원

## ○ 결혼과 양육

### □ 국고, 지자체 재원

- 결혼과 양육영역의 지원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가사 및 양육 지원', '장애인 부모의 비 장애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이 있다. 이 영역의 지원은 성인기 결혼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세부 과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세밀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
- 결혼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및 결혼 준비, 임신 준비 및 출산 과정, 양육 및 자녀 독립 후 노후 지원 등 일련의 다양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
- 기혼 발달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현재 가구 소득, 자녀 연령 등의 기준으로 매우 제한된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의 결혼과 양육영역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 지원에 중점
-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충북 지역의 경우 동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서비스를 제공
- 서울, 제주 지역에서는 기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자녀 돌봄, 외출 등 포괄적 지원

## ○ 가족 내 돌봄

### □ 국고, 지자체 재원

- 가족 내 돌봄 영역의 국고 및 지자체 지원에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등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녀의 연령 및 장애 수준 등의 자격 기준이 적용
- 이 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등은 별도의 자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주 양육자와 가족이라면 모두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전체 가족 또는 주 양육자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원은 다소 미비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가족 내 돌봄 영역의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 부모상담, 가족 휴식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여 진행
-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로 장애인 자녀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여가, 자조 모임, 나들이, 비장애 형제자매 관계 형성 및 활동 등 포괄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된 가족 지원서비스가 진행
- 대구 지역은 만 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서비스가 실시
- 경남, 광주 지역은 중증장애인과 위기 발달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원
- 경기, 충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멘토를 활용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실시

○ 학대와 차별

□ 국고, 지자체 재원

-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영역의 지원서비스에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무료 접률 구조제도' 등
- 장애인 학대에 대한 권리 구제, 피해 장애인 지원 등 피해 후 지원에 집중되어

지원 범위가 매우 협소

- 추후 지원이 수반되는 인권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차별, 학대 등 인권 침해 부분에 있어 예방과 옹호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확대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학대와 차별영역의 지원에는 크게 차별, 학대, 범죄 피해 등과 관련한 교육 지원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비용 지원
-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천, 경기 지역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실시
- 지자체에서는 예방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 주민, 가족 등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필요

○ 서비스 기관 이용

□ 국고, 지자체 재원

-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
- 장애인복지시설 범주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제도가 신설되면서 설치된 서비스 기관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친화적 의료 환경을 갖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도전행동 등 행동 중재 및 지원 등 제공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로부터 지정받는 서비스 기관, 전국적으로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설치

□ 지자체(시도, 시군구) 재원

-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의료, 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낮 활동 및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수리,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한 특화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 서울, 부산, 경기 지역 등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낮 활동과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중증중복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울산(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경기(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 등
- 대구와 충북 지역의 경우 장애인 가족이 일시 부재 시 돌봄 서비스를 시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를 운영
- 충북 지역은 장애 수준 및 지리적 환경 등으로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복지관,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나. 지자체 대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 ○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 진단 및 조기개입과 관련해서는 강원 지역이 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 후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발달센터를 설치 운영
- 강원 지역은 이 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등에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래관계 증진 등 발달상의 필요한 기능 향상에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 ○ 보육 및 교육

- 보육 및 교육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성과가 도출되었던 지자체 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 등
- 광주, 경기(남양주시), 강원 지역에서는 학교 졸업 후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과제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제공
- 전북(진안)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 돌봄 공간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방과 후 발달장애학생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주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 ○ 건강 및 의료

- 건강 및 의료 영역의 대표 지원서비스로는 경기(고양시) 지역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 경기(고양시) 지역은 의료진이 발달장애인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검진, 운동 처방, 구강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진료, 치료하는 지원체계를 마련

### ○ 일상생활

-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우선,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 및 위험을 감지하고 응급 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급
- 서울 지역은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사업 챌린지 2'
- 대구 지역은 '도전적행동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 광주 지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 대전, 울산, 전북 지역 등은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자체 추가 지원을 대표 사례로 제시

### ○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영역과 관련하여 경기(남양주시)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을 설치하여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 성과를 제시
- 경기(광명시), 전남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여가생활, 자기결정 및 주도 역량 강화 등을 기대

### ○ 경제활동

-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지원,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전환기 교육, 디지털 기술 기반 직업훈련 등이 제시
- 광주 지역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연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지역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개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실시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직업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

- 경기(의왕시) 지역에서는 가상현실(VR) 등을 통한 온라인 직업교육을 대표 서비스로 제시
-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가상현실(VR)을 통한 온라인 직업 교육을 시도하면서 지속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충북 지역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긍정적인 성과

### ○ 사회참여

-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해서는 인천, 제주 지역이 발달장애인 대상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 사례를 대표 서비스로 제시
- 인천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 정보를, 제주 지역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 보급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
-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서비스 기관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 개인의 예술 역량이 함양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

### ○ 가족 내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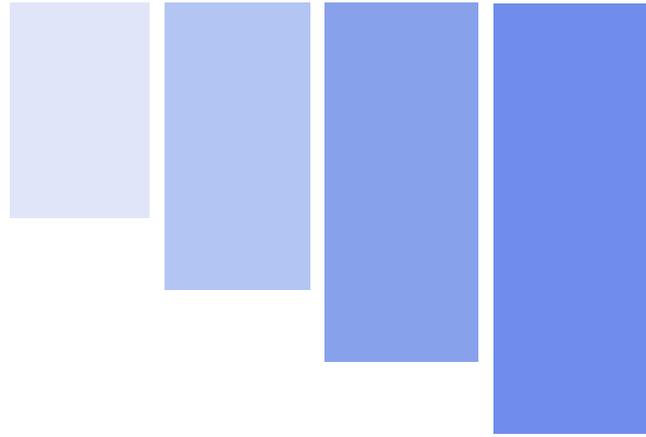
- 가족 내 돌봄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사례가 제시
- 경기(남양주시)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멘토 부모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및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여 주 양육자의 양육 기술 및 긍정적 태도를 갖는데 도움
- 충북(청주)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대학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참여한 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학습하고, 부모 간 네트워크를 구축

## 다. 코로나 시기 대응 지원 서비스

-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시기 기존 지원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서비스는 미비
-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방역물품 지원, 긴급 돌봄, 비대면 서비스 환경 지원, 사례관리 등을 지원
- 서울 지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위기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 및 긴급 돌봄 인력 지원 등을 실시
- 대구 지역은 백신접종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 및 교통비를 지원
- 광주 지역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금을 지급
- 그 밖에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 라.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필요 지원서비스

- 주로 일상생활 및 돌봄에 대한 필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과 '도전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북 지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평생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 발달장애인의 자산형성,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증진센터 확대 등의 욕구가 제시



## **제4장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1. 해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 2. 시사점**



##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복지제도

### 1. 해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 가. 미국 사례

##### ○ 발달장애인 관련법

- 미국 전역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발달장애 지원과 권리에 관한 법(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1984) 을 근거로, 발달장애인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 2000)을 설치
- 발달장애인국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파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 담당
- 자폐성장장애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법률(Expanding the Promise for Individuals With Autism Act, 2007)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그 대상을 한정지었는데, 이들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도모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제정
- 이 법에는 자폐성 장애인의 정의 및 개입과 치료의 목적 등 그 역할과 방향을 명시
- 해당 예산 및 구체적인 절차도 제시
- 그 외에 자폐성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긴급 보호, 옹호 등 경제 치료적 지원을 법률로서 보장
- 발달장애인 지원법(DDAct)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대두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단위 최초로 1973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랜터만법(Lanterman Act, 2011)을 제정
- 장애아동교육에 관한 법을 찾아보면 장애아동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d Children Act, 1975) 이 제정된 이래로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으로 개명되면서 법의 내용 일부가 개정

- 장애인교육향상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Enhancement Act, 2004) 으로 개명되면서 초·중등 교육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습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점차 강조

## ○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지원제도

###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지원은 현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Medicaid programs),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충소득급여 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이 있음
- 장애인의 진단 및 사정, 의료 치과서비스, 여가서비스, 치료서비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복과 음식제공, 보조기구 제공, 주거환경 개선, 건강보험 서비스 등이 제공
- 가족에게는 정보제공과 의뢰, 가족상담, 부모교육, 형제교육, 서비스 조정, 재정지원 및 미래의 재정계획 서비스 등이 제공

### □ 리저널센터

-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진단 및 상담, 개별 평생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IPP) 조정 통합, 프로그램 개발 활용
- 서비스의 배치 모니터링, 지역사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캘리포니아 주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에서 랜터만법(Lanterman Act) 에 근거하여 설립
-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 담당
- 센터에서 시행하는 개별화프로그램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IPP)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령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지만,

성인기로의 전환기에는 개별전환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을 세우고 그룹홈과 직업재활기관을 연계

- Regional Center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보호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표현능력과 자기옹호, 취업능력, 여가활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
- 직업서비스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지원고용, 직업활동 등을 시행하며, 조기교육서비스로 작업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부모교육,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제공
-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마련 서비스, 그룹홈 및 체험홈,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 주 정부 발달센터,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재가 활동보조서비스, 이동보조서비스, 부모 휴식 및 보호서비스 등

#### □ 보호자의 사후를 대비한 후견인 신탁제도

- 발달장애인지원법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시민으로서 국가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 18세가 되면 부모는 장애인의 후견인이 되고, 이들은 피후견인의 재정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그 소득이 적은 경우, 재산이 2,000달러 미만에 속하면 정부에서 1년에 4만~5만 달러 정도의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탁은 개별신탁(Individual Trust) 또는 공동신탁(Pooled Trust)으로 나뉘는데, 이는 부모유산의 경우에도 정부혜택의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자 사망이후의 자녀의 신변 안전을 꾀한다. 후견인은 부모 사망 이후 장애인이 재산 또는 병원입원, 수술 등의 어려운 결정을 돕기 위해 설정

#### □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발달장애 지원과 권리에 관한 법(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에 의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에서 진행
-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
- 법률로서는 교육 고용 건강 교통 주거 아동보호 질적 보장 여가의 8개 분야가 해당
- 2000년 발달장애 지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지원에는 포괄적 가정지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 나. 영국 사례

### ○ 발달장애인 관련법

-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료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의 돌봄을 중심의 서비스를 제시
- 5년 뒤에는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다각적으로 보장되기 시작
-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Disability Rights Task Force(1997)을 구성
- 2000년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DRC)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
- 커뮤니티 케어 직접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1996)의 제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서비스 대신 현금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
-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노인, 돌봄제공자, 장애아동의 부모 등으로 확대
- 특수교육요구와 장애인법(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교육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간에 학습에의 차별금지와 평등을 강조

-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 은 자기결정권과 후견인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엿보임
- 2010년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 이 제정된 이래로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은 Northern Ireland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등법으로 대체되어 장애인 차별금지 와 평등을 보장
- 평등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뿐 만 아니라 차별금지 관련 기존의 법들을 통합한 것으로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의 보호자 및 돌봄자가 장애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 간접적 차별과 괴롭힘이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을 법제화 함

## ○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지원제도

### □ 부모파트너십 프로젝트

- 각 지역별로 교육에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년의 부모, 돌봄자를 지원한
-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아동의 부모와 파트너십을 맺어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방정부 및 학교에서 부모의 욕구반영 여부파악, 부모의 고민상담자 안내, 부모 와 돌봄자의 책임과 권리,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법관련 정보 제공

### □ 장애생계수당

-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2 년에 도입된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
- 장애생계수당의 지원은 직업유무 소득정도와 무관하며, 돌봄 요인(care component) 및 이동성 요인(mobility component)에 따라 차등 지급
- 돌봄 요인은 돌봄이 필요한 정도,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정도이며, 이동성 요인은 독립보행의 가능여부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
- 장애아동에게도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16세 미만은 그 부모가 수당신청 및 수령 할 수도 있음

- 장애인요양수당
  -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비과세급여
  -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당지급의 필수항목은 아님
  - 2011-2012년 기준으로 수당은 78.60유로~49.30유로의 주간비용을 장애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 보호자 수당
  -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자수당 지급
  - 보호자수당은 16세 이상의 장애인 및 간병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경우, 자산조사 없이 최대 2명까지 1~2주에 한 번 급여를 지급
- 피플퍼스트
  - 영국의 대표적인 자조집단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조집단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있음
  - 이 단체는 사회통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보고서 발간 및 출판 등을 지원하며, 자조집단지원전문가 교육실시와 더불어 이용자가 자기주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자문을 제공하기도 함

## 다. 호주 사례

### ○ 발달장애인 관련법

- 장애인서비스법(1986)의 제정으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및 이동, 학습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을 유도
-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
- 같은 해 빅토리아 주에서 지적장애인과 발달이 지연된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서비스법(1986)을 제정
- 해당 법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는 물론, 그들의 권리를 보장과 관련된 시설의 역할이 제시됨

- 여기서 지정한 지적장애인은 18세 이전에 평균보다 지적수준이 매우 낮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
- 여기서 발달이 지연된 장애인이라 함은 6세 미만,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발달이 지연되었음을 의미
- 그로 인해 자기 돌봄 및 인지, 언어, 운동 발달에 있어 일부 기능이 제한되고, 발달상의 한계로 인해서 장기간 개별화 계획,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자
- 본 법에서 정의한 지적장애인은 5세 이상, 또래집단보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자
- 2007년에는 지적장애인서비스법(1986) 과 장애인서비스법(1991)이 장애법(2006)으로 통합
- 빅토리아 주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인 권익증진이 국가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지원제도

-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
  -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설 중심의 보호모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로 변화
  - 재가중심의 서비스와 지역복지 서비스가 점차 개발
- 장애정책개혁종합안
  - 장애정책개혁종합안이 반영되면서 장애연금제도(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 실시
  - 이러한 혜택을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및 재활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독립생활을 도모
- 연방정부-주정부/특별행정구역 장애협정
  - 이 협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장애인정책을 통합하고,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장애정책 방향 및 원칙에의 합의를 이끌어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에 그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가 호주의 장애인정책에 큰 발전을 불러옴

- 그 결과, 연방정부는 고용서비스를, 주정부와 특별행정구역(Territory)에서는 주거서비스(accommodations)를 비롯한 기타 지원서비스를 주관
- 옹호서비스 계획과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의 간소화로 예산이 절감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투자 가능하게 됨
-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의 서비스제공과 전달방식에서 큰 변화를 불러옴

#### □ 연방정부 장애전략

- 장애인의 정책 및 제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 기초하여 전략을 세움
-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장애전략을 세웠는데,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정부기업을 제외하고 성과보고서를 매년마다 제출
- 그 후, 국가장애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의 수립으로 장애관련 서비스망에 속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돌봄자(carer)도 지원이 이루어짐

#### □ 발달장애인 조기개입서비스

- 6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교육부가 주관
- 장애아동 관련 요원이 추가되거나, 보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관련 부처에서 책임지며, 호주 전 지역의 아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지원
-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 전달방식을 비롯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알려주며, 영역간 서비스(cross-disciplinary services)는 각 분야의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심리학자 교사 등에 의해 제공
- 특별히 Queensland와 Tasmania지역은 진단시기부터 조기개입까지 총괄하며, 조기개입센터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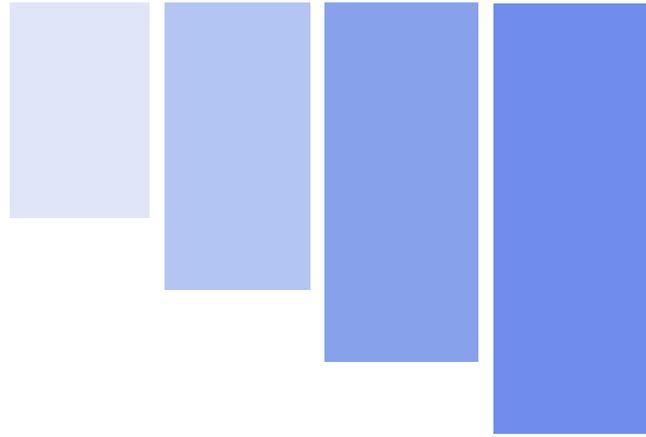
- 정부부처들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연계하여 재활치료와 서비스를 제공

□ 장애아동 특별교육보조금

- 장애아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 서비스가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주지에서 교육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함
-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

## 2. 시사점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 제도의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 최저선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삶의 질은 부모와 가족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0~3세에 장애 발견 시에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학령기에는 학교를 통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환기 성인기 노년기에는 정부 주도로 발달장애인 전담국이 나서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동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 지적장애인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종류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가정 및 지역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중심 보호모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모델로 변환
- 해외 사례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지원 및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
- 전환서비스와 관련하여 리저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적 서비스보다는 대부분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지원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전환지원기관 운영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



## **제5장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분석**

- 1.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법률**
-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및 전환 서비스**
- 3.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 분석

### 1. 발달장애인 자립 및 지원 관련 법률

#### 가. 발달장애인 관련법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상세하게 세워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 일반국민까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
- 장애발생의 예방 및 발생 후 의료와 재활치료, 교육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재활상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재활과 자립서비스, 의료비와 장애아동수당, 활동보조인 등 직접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차별과 취업상의 차별해소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2007년에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순회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의 형태도 법률로 정하고 있어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된 법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011년 8월 제정된 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그 외 일반법 중 영유아보육법 및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에서는 장애아동이 보육 및 교육에 있어 취약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화 하고 있음

## 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자립생활지원 조항,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제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이와 함께 장애아동지원법 제25조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이 있음
- 발달장애인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는 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과 장애아동지원법 의 조항
- 특수교육법 에서는 전환서비스로 진로 및 직업교육 등 직업을 강조하는 반면, 장애아동지원법 은 전환서비스 범위를 직업은 물론 주거 등의 전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근거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와 함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설립 근거
- 장애인복지법은 일선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 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환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음

-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시설장애인의 퇴소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서울, 경기, 대구 3개 시도이며, 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시도는 서울, 경기, 경북, 인천 4개 시도임
- 경기도는 이에 근거하여 2011년 자립생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정책 제안을 시도
-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활동지원의 추가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담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나 주거,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음
- 대다수의 시도가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명시

## 2.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 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사회서비스

-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교육서비스, 고용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주거서비스, 그리고 기타 사회지원서비스로 분류
- 교육서비스에는 평생교육서비스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그리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증진 방안으로 199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 등
- 고용서비스에는 직업재활서비스로 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있으며, 지원고용의 형태로는 일반적인 지원고용과 근로인지원제도 등을 제공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만 6세부터 만

-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
- 고용서비스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소득 지원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입각한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 급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 받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차상위 계층에게도 일정 수준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
  - 비수급자에게도 각종 소득공제와 세제혜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거서비스 부문으로는 크게 주거지원과 장애인 그룹홈을 들 수 있으며, 주거지원의 형태로는 주거환경개선, 주택수리,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등
  - 이 외에도 성년후견인 제도, 장애인신탁제도, 법률구조 서비스 등 여러 형태의 사회지원서비스들이 시행되고 있음

## 나. 자립지원센터의 자립지원서비스

- 국내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안 내서에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명시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규정
-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으로 '상담지원', '사회활동지원', '권익옹호', '부모교육 등 서포터즈 양성', '성년후견활동지원', '문화체육 활동지원'과 같이 6가지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
- 서울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기권리 주장교육, 성폭력예방활동, 각 종 여가와 문화 활동 등을 위한 동호회, 실질적

- 인 자립생활 체험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동호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도 지적장애로 제한하지 않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청소년 모두 대상으로 포함
- 부산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상담지원, 도우미파견, 권익옹호, 지역자원개발 및 홍보, 문화체육활동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용대상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
  - 다솜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성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력만들기, 집단활동과 분별력 기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마음만들기, 일상생활기술 등과 관련된 생활지도, 놀이발달, 지적개발 등의 프로그램 실시

#### 다.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

- 대표적인 전환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와 일선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등
- 대상자는 각각 거주시설 퇴소 성인장애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
- 주요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는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역사회 자립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환평가, 사회자립프로그램, 직업현장 견학 및 실습, 방학 특별활동 그리고 학령기 이후 필요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들로 사회적응서비스를 주로 제공
-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직업개발과 사회적응교육, 각종 공동체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직업교육과정,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 직업관련 활동 등을 주로 직업관련 활동을 지원
- 전환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응, 여가와 문화, 주거, 자기결정기술 훈련, 평생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3.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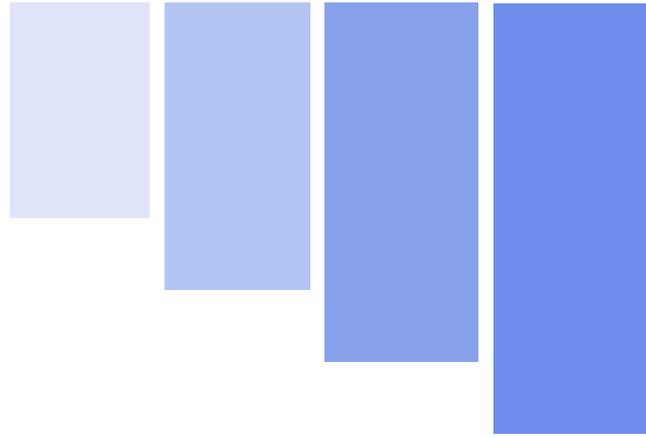
####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고용촉진제도(1990), 편의증진제도(1997), 특수교육 확대(2007), 차별금지제도(200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 최근 장애인연금제도(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가 도입되면서 장애인지원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진 상태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마련에 중점을 둘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마련
- 사회적 보호체계가 불완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기진단 치료체계, 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이 안 되고 부모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 가능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자립지원 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
- 정부에서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 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지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
- 보건의로, 보육 교육, 고용, 복지, 권익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주요이슈와 과제가 제안

####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사회구현,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하는 기반마련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정책목표를 세움
- 세 번째 목표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의 중요성을 시사

-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 정책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장애 조기발견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통한 확대 등에서 우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가 지난 8일 개소했다. 하지만 거주시설 운영법인이 긴급돌봄 수행기관에 선정될 수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현 시범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이 개발하고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이자, 위성 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2023.3.2 거주시설 운영법인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수행... 장애계 “반발”]이라는 장애계의 반발을 사기도 함



## **제6장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자립방안 제안**

- 1. 초점집단면담 결과**
- 2.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자립방안 제안

## 1. 초점집단면담 결과

### 가. 조사 개요

#### ○ 일반사항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
- FGI는 도전행동, 중복장애,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최종증 장애인, 기혼 발달장애인, 고령 발달장애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
- FGI는 개방형 조사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유사한 장애 특성 및 환경에 있는 참여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 당 1회씩 약 2시간 이내로 진행
- FGI의 주요 질문 내용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변화, 지원 영역별 필요 지원 등을 포함

#### ○ 연구윤리

- FGI를 통해 수집된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 종료 후 녹취록을 전사하여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주요 질문별로 공통된 주제에 대한 범주화

## 나. 분석 결과

### ○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

- 지속되는 막막한 돌봄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부산 남구

### ○ 일상의 변화

- 3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장애 퇴행 및 이동의 어려움 존재
- 가족 관계의 변화
- 각종 대면 서비스 축소에 따른 어려움
- 발달장애와 무관한 서비스가 실행되는 현실

### ○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

- 이용 가능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점차 사라짐
- 중증 발달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정책의 구현과 실현
- 여전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어려움
- 서비스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정보 부재
- 서비스 비용 및 치료비 부담
- 중복 장애인 경우 서비스 제한점 문제
- 전문 인력의 부족
- 가족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은 죄책감

### ○ 지원영역별 필요 지원 서비스

- 공공 재활치료 지원의 확대 절실히 필요
- 각종 공공재 및 기관의 확대 요구
- 보육과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 -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육기관

- 지방정부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심
- 주간활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 확대 필요
-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
- 결혼하고 싶은,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길
- 주양육자나 가족이 없어도 공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겨야 함

### ○ 제반환경 구성

- 중증 장애, 중복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구축 필요
- 개인별 차근형 서비스 절실
- 위기 가정, 위기 발달장애인을 찾아서 밀착 서비스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 서비스 필요 -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원격서비스 등
- 발달장애인에게 친근한 주변환경 필요 : 운동이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므로 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관련 환경이 조성
- 발달장애인을 돕은 지원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필요

## 2.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 가.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시도 및 자치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지역센터의 주요 역할은 ①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② 장애 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 제공, ③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기관과의 연계, ④ 장애아동 사례관리, ⑤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실시, ⑥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규정

- 지역장애아동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도 중심으로 설치하고 이후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장애의 발견, 진단과 이에 대한 조기개입, 부모상담과 교육, 필요 정보제공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의 확대가 필요
- 초기 장애수용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 및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다양화 필요

## 나. 보육 및 교육

- 장애아 통합 및 전문 어린이집의 지정 확대와 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
-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전문,통합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 방식의 마련이 필요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에 들어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 성인기 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의 의무화를 고려

## 다. 건강 및 의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발달장애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병원이다. 현재 대전, 경남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만 설치되어서는 안되고, 각 시도별 1개소씩은 설치가 필요
- 발달장애인 전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필요
- 발달장애인 전문 건강검진센터 설치가 필요
- 발달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

## 라. 일상생활

-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
-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
-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지역 기반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할 필요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환경을 구축

## 마.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가정위탁 확대가 필요
-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원을 다양화하고 공급을 확대할 필요
-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체계를 형성할 필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화할 필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

## 바. 경제활동

- 보호작업장 등 분리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지원고용
- 발달장애인과 같은 직업적 최종증장애인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권리중심 일자리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전략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의무고용제도에서의 발달장애인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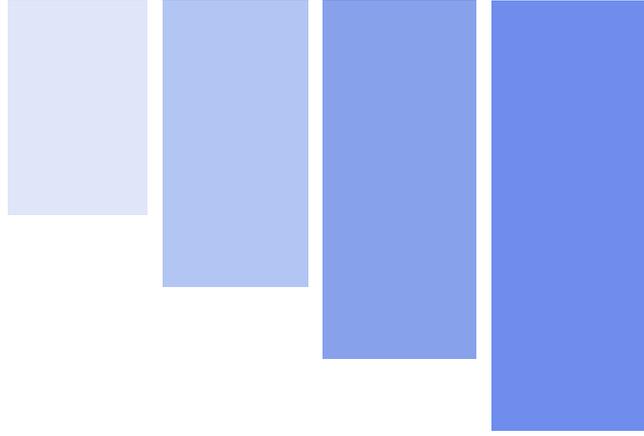
## 사. 사회참여

-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필요한 지원 중 하나는 그들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 사회참여의 주요한 영역 중 하나는 참정권의 보장
-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
- 장애 특성상 발달장애인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아. 결혼과 양육

-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성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성권리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
- 기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결혼 생활 및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
- 발달장애인 부모의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적절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멘토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



##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7장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 장애진단과 조기개입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애를 발견하고 발견하는 시점에 비추어 곧장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출생 후 2년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않으면 입학 시기에 맞춰 장애 진단을 받음
- 원인 모르는 경우, 혹은 선천적인 경우로 발달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의 발달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움
-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대다수 받고, 그 시작 시기는 3세가 가장 많음. 이는 언어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가장 많이 받은 재활치료가 언어치료인 점을 미루어 보아도 위의 상황이 해석 가능한 실정임
- 주로 이용한 기관은 사설 치료 및 교육센터 기관이며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모르기 때문으로 확인됨
- 재활치료나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진단 후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
- 대부분 초등학교 시기는 일반학급이 통합학급에서 지내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특수학교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입학, 진학 등 학업을 이루는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조금이라도 어릴 때 집중 치료를 해서 장애가 호전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경험한 비율도 상당히 높는데, 그 이유는 가정에서 가깝기

때문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주길 희망함

- 간혹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 관련 기관이 없기 때문이므로 발달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임
- 부산 남구 거주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혼자 통학이 불가능하고 통학시 가족이 동행하여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가족 부담이 높은 실정임
- 학교를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주변의 따돌림, 놀림, 소외이며 폭력이나 따돌림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낮은 편임
- 학교에서 따돌림, 놀림, 소외, 폭력 등이 발생하면 교사가 가해 학생에 주의를 주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생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받고 싶은 평생교육은 일상생활 훈련으로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함
-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향유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기관이 확대되는 것이며, 이를 종합하면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 등의 각종 공공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 건강 및 의료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대체로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보통 수준으로 가지고 있음. 그리고 장애 이외에 특별한 문제를 추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임
- 수면상태는 보통 이상이 많으며 과반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음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주 3회, 하루 30분, 집과 가까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걷거나 조깅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동을 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과반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민간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체로 원활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혹시라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관련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
-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며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임
- 그럼에도 각종 보조기기 사용 여부는 매우 낮은 실정임
- 낮 시간대는 주로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대부분 부모님
-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지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매우 높으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대다수 만족하고 있음
-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임

### ○ 자기결정 및 미래준비

- 향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주로 부모이며 미래 희망 거주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임. 이는 부모 사후 본인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을 염두해 두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거주시설에 대한 경험이 없으나, 거주시설을 경험했던 발달장애인은 주로

1년 미만, 혹은 10년 정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됨

-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거주 시설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우했기 때문임
- 수면선택, 음식선택, 의류선택, 여가선택 등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가지지만 대인관계 선택에서는 자유도가 낮은 편임. 이와 같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 부족이 원인일 수 있음
- 또한 소비와 지출에 대한 자유도 역시 낮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의 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수입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직업선택이나 시설, 기관, 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도도 낮으며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선택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의사소통에 있어 1/3 가량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부모이며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혼자 남겨지거나 일상생활이 안되거나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래를 위하여 집이나 재산 마련, 저축, 국민연금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본인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나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미래를 계획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등이 있기를 바라고 있음

## ○ 경제활동

- 대다수 미취업 상태임
- 취업을 한 경우 단순노무직,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음
- 주로 상용근로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 미만의 짧은 근로 기간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대다수임
-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월 소득은 50만원 미만인 발달장애인이 다수

### 인 상황임

-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희망하는 경우보다 많은데 이는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무환경이며 취업이 용이해지려면 취업과 관련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직장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높은 확률로 직장 내에서 업무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장 큰 필요는 출퇴근 지원으로 파악됨
-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보수임
- 향후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서 일하기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음

### ○ 사회참여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 중 다수는 거의 매일 외출하며 외출의 주 목적은 복지관, 센터 등의 이용이며 외출 시 어려운 점은 사회의 각종 차별임
- 지난 1년 간 주요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며 이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가는 TV 시청으로 보내기 희망함
-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
- 한 달 이내에 참여한 모임은 주로 종교 모임이 가장 많고 고민이 있을 때 이를 나눌만한 친구는 제대로 없는 실정임

### ○ 결혼, 양육, 여성장애인 관련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며 교제하는 이성도 거의 없고 향후 결혼을 희망하지도 않음
-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 후 독립을 위한 주거, 일상생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됨
-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과 장애 상태 때문이며 발달장애인의 가족조차 발달장애인이 원한다고 하여도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본인의 결혼 상태, 자녀 상태, 배우자 상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꺼리는 성향이 많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활동지원사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음

### ○ 가족 내 돌봄

- 주돌봄자(가족)이 부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음
- 주돌봄자(가족)이 부재할 경우 사적으로 도움 받을 곳은 비동거 가족이며 공적으로 도움 받을 곳은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음
-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가족 사후 발달장애인이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 하고 있음

### ○ 차별 및 학대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차별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주로 교육기관에서 차별 받았다고 느꼈으며 이를 인지하였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문제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은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각종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음
- 정서적 학대의 경우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던 경우가 많았음. 피해 발생시 주로 상의한 사람은 가족임
- 신체적 학대의 경우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던 경우가 많았음. 피해 발생시 주로 상의한 사람은 가족임
- 성적학대, 방임 및 유기, 경제적 착취의 경우 응답이 전혀 없음
-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 ○ 복지서비스

-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전국 평균 비교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확인됨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각종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전국 평균 비교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이 가장 높음
-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전국 평균 비교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만 직업재활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통합 관련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확인됨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지역사회 서비스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임
- 각종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비교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계속 혹은 새로 이용하고 싶은 가족대상 지역사회 서비스는 교육, 돌봄, 진로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임
- 복지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를 몰라서 가장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연간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쓰고 있고 주로 장애인(부모)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희망함

## 2. 결론

실태분석 자료를 근거로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결론을 대신하여 정책 제안을 하는 바임

- 발달장애에 대한 내용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발달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 있음. 특히 발달장애를 포함한 각종 장애 발생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함
-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달장애를 가장 많이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재활을 제일 많이 받고 있으므로 언어치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를 조기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재활치료는 사설치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재활치료를 공적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느끼고 차별이나 소외 등이 발생할 때 교사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식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일상생활 불편 해소, 직업재활 교육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이 활성화될 필요

- 발달 장애인의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이들이 쉽게 이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각종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어서 부모 부재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모의 소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음. 이에 공적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 의사소통, 대인관계, 직업, 소비와 지출 등에서 선택과 이용의 제한을 상당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 의사소통의 준비 등이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화되어 제공될 필요 있음
-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적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프로그래밍 마련될 필요 있음
- 자신의 건강 상 이유로 결혼, 양육, 교제에 대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 주돌봄자(가족)의 부재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도움을 받더라도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다수임. 공적 영역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주돌봄자(가족) 사후 혼자 남겨질 발달장애인에 대한 본인, 가족의 염려가 크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혼자 남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 시급

-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부산 남구의 각종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들은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 가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외에 각종 교육 시설,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남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자립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감사합니다.